

정보운동 액트온 | ActOn

자립과 대안을 꿈꾸는 문화생산자

통권 제13호 | 2011년 제2호



진보넷 협판이 생겼어요. 문정현 신부님이 직접 만들어 선물해주셨답니다.

밥,,, 돈

며칠 전에 혼자 노동 다큐를 찍어오신 숲속홍길동님이 자살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친한 사이는 아니었지만, 여러 현장에서 몇 번 그를 본 적이 있습니다.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마지막 남은돈 2300원을 갖고 PC 방에 가서 돈을 좀 불여달라는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우울합니다.

지난 6월 27일에는 한진중공업 파업 조합원에 대한 강제 퇴거 집행이 강제되었습니다. 85호 크레인에 오른 김진숙 지도위원은 여전히 내려오지 못하고 있는데, 노조 집행부는 항복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유성기업에서는 쇠파이프와 소화기를 동원한 용역들에게 노동자들이 집단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나마 다행히 두 리반은 타결되었지만, 명동에서는 또 다른 철거 반대 투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안정적인 일자리, 주거, 최소한의 생계...모두 정당한 요구들입니다. 그러나 돈만 아는 미친 세상에서 사람들은 죽고, 다치고, 쫓겨나고 있습니다. 요즘은 온통 우울한 소식들 뿐입니다. 비도 주룩주룩 내립니다.

7월 9일, 2차 희망버스가 한진중공업으로 떠납니다. 우리의 희망버스가 가야 할 곳은 너무도 많습니다.

오병일 @antirropy

계간 정보운동 액트온 ActOn

통권 제13호 | 2011년 제2호

발행일 2011년 7월 7일

등록일 2003년 8월 1일

발행처	진보네트워크센터
발행인	이종회
편집인	오병일
편집	하주영
표지	박명훈
인쇄	천광문화사

등록번호 서울 바03553

주소 서울 서대문구 총정로3가 227-1 우리타워 3층

홈페이지 <http://act.jinbo.net>

이메일 antiropy@jinbo.net

전화 02-774-4551

ISSN 1976-1953



별도의 표기가 없는 한 본 정보운동 ActOn에 실리는 모든 내용은 '정보공유라이선스 2.0: 영리금지'를 따릅니다.
www.freeuse.or.kr/license/2.0/yg

“자립과 대안을 꿈꾸는 문화생산자”

Section 001. 자립과 대안을 꿈꾸는 문화생산자	… 07
저작권을 넘어선 문화생산은 가능한가? / 오병일	… 08
대안을 생산하다! 사회적 제작 <뉴타운컬쳐파티> / 이상욱	… 15
음악가와 생활협동조합, 그 문제의식에 관하여 / 단편선	… 24
Section 010. 이슈	… 32
누군가 나를 감시하고 있다/ 장여경	… 33
인터넷 실명제 이제 그만! / 정민경	… 35
표현의 자유,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 장여경	… 38
사유 소프트웨어의 ‘이용자 감옥’에서 ‘탈옥’하기 / 조동원	… 42
서체의 이용행위의 저작권 침해여부 판단과 제언 / 정진근	… 47

Section 011. 문화는 공유를 타고	… 53
Section 100. 이달의 북킹	… 60
Section 101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 66
Section 110. 회원 인터뷰	… 75
Section 111. 센터 속사정	… 83

Section 001. 자립과 대안을 꿈꾸는 문화생산자

저작권을 넘어선 문화생산은 가능한가? / 오병일
대안을 생산하다! 사회적 제작 <뉴타운컬쳐파티> / 이상욱
음악가와 생활협동조합, 그 문제의식에 관하여 / 단편선

저작권을 넘어서 문화생산은 가능한가?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공유연대 IPLeft 활동가)

〈비카인드 리와인드 (Be Kind Rewind)〉라는 영화가 있다. 발전소에서 감전 사고를 당한 후 온 몸이 자석이 된 제리, 그로 인해 친구 마이크가 점원으로 일하고 있던 비디오 가게의 비디오가 전부 지워져 버리고 만다. 이 사실을 숨기고 비디오를 대여하기 위해 그는 마이크와 함께 직접 즉흥적으로 영화를 찍어간다. 스스로 주연과 조연이 되어 〈백 투 더 퓨처〉, 〈로보캅〉, 〈킹콩〉 등 유명 영화들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찍어가는데, 이들의 영화는 오히려 마을 주민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게 된다. 그러나 이들이 만든 영화는 결국 저작권법 위반으로 폐기되고 마는데... 이 영화는 한 마을의 소규모 비디오 대여점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그 풍경은 인터넷 시대에 저작권에 짓눌린 지금 우리네 삶과 크게 달라보이지 않는다. 수용자가 스스로 영화를 만드는 즐거움, 문화 창작자와 수용자가 어우러지는 공동체는 사라지고, 우리를 그저 문화상품의 소비자로 만들어버리는 메트릭스같은 시스템.



저작권 vs 이용자의 권리

이미 관객 1000만을 넘어서는 대박을 터트린 영화 〈해운대〉의 불법복제물이 유통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한 범죄' 운운하며 전 국가적인 관심이 쏟아지지만, 저작권에 의한 일상적인 이용자 권리 침해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 지난 2009년 6월, 딸 아이가 손담비의 '미쳤어' 음악에 맞춰 율동을 하는 동영상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가, 저작권 침해로 삭제를 요구당한 사례는 이례적인 것이 아니다. 2005년에 KBS의 인기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의 팬 카페에 올려진 동영상과 사진이 KBS의 요구에 의해 삭제가 된 바 있고, 지금도 방송사들의 요구로 방송프

로그램 캡쳐화면이 포함된 블로그 포스팅들이 사라지고 있다. 자기 활동과 관련된 기사를 홈페이지에 올렸다는 이유로 시민사회단체들조차 법무법인으로부터 소송의 위협에 시달리는가 하면, 수많은 네티즌들이 저작권 단속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신의 홈페이지나 블로그의 배경음악을 서둘러 삭제한 경험을 갖고 있다.

이처럼 이용자에게 저작권은 한편으론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런데, 이용자들이 정말 잘못한 것일까? 그 두려움은 범죄자들이 가져야 마땅한 감정일 뿐인가? 이용자들은 무언가를 '훔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저 '표현'하고 '소통'했을 뿐이다. 오프라인에서도 그렇지만, 온라인에서도 시민들의 소통은 공개된 문화생산물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어제 방영되었던 드라마에 대해 친구들과 수다를 떨듯이, 온라인에서도 그렇게 자신의 의견을 풀어놓을 뿐이다. 다만, 온라인에서는 그 대상물을 바로 '복제'해서 이용할 수 있다는 점만 다를 뿐... 그러나, 복제기술 발전으로 가능해진 이러한 능력이 비난받아야 할 이유가 있는가? 친구와 드라마에 대한 수다를 떨기 위해 방송사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면 얼마나 횡당한 일인가?

과거 저작권 침해에 대한 단속은 용산 전자상가의 불법CD나 길거리의 불법 음악테이프와 같이 주로 '영리를 목적으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제 저작권은 '모든' 시민들의, '비영리적 표현이나 상호 소통'을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당장의 먹고사니즘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어서 그럴까? 아니면 저작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데올로기가 그만큼 강력해서일까? 어쩌면 권리자들은 이미 '저작권협회'와 같은 신탁단체로 조직화되어 있거나, 음반사나 영화사와 같이 막강한 자본력을 가지고 있는 반면, 이용자들은 조직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힘든 조건이어서 일 수도 있다. 어쨌든 웹하드를 통해 영화 파일이 유통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문화적 소통을 규제하는 근거는 될 수 없다. 문화 생산물을 매개로 한 상호 소통이 배제된다면, 문화상품에 대한 소비밖에 남는 것이 없을 것이다. 저작권자들은 그것을 원하는 것일까?

저작권은 문화, 지식에 대한 통제권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겠다. 문화상품의 소비자들이 그것을 개별적으로 향유하는 것을 넘어, 그 문화상을 지지고 볶거나 다른 사람과 주고받기 시작하는 순간 권리자들의 통제권은 약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실 저작권은 창작자에게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을 복제, 배포할 수 있는 통제권을 주는 것이다. 물론 공정이용 조항을 통해 그러한 통제권을 일부 제한하기는 하지만, 기

본적으로 권리자는 그러한 통제권을 극대화하고자 한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과거에 설정된 통제권을 강화하거나 약화시키며, 이와 같은 통제권을 어떻게 재설정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현재는 여러 유료 음악 서비스의 하나가 되었지만, 2000년대 초반 '소리바다'는 (사실상 당시 인터넷 이용자 전체라고 할 수 있는) 2000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었다. 소리바다는 단지 음반 구매 비용을 아끼려는 이기적인 소비자들의 해적질을 도와주는 도구였을 뿐일까? 그렇게만 볼 수는 없다. 그것은 시장성이 없어 더 이상 유통되지 않는 오래된 음악, 국내에 수입되지 않는 해외 음악, 그리고 인디 음악 등을 접할 수 있는 음악의 보고(寶庫)였으며,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음악에 대해 나누는 커뮤니티였다. 비록 소리바다를 통해 유통되는 음악의 주류가 당시의 히트 음반이었다 할지라도,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크다. 즉, 권리자(공급자)에 의해 통제되는 시장을 통하지 않고 이용자 스스로 자신이 원하는 음악을 향유하는 즐거움을 맛보게 된 것이다. 음반-유통 자본은 국악이나 비주류 장르와 같이 시장에서 팔리지 않는 음악은 제작하거나 판매하지 않는다. 비록 일부의 사람들은 그것을 원하더라도 말이다. 소비자들은 상품을 구매하거나 하지 않는 방식으로만 공급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소리바다와 같은 새로운 기술의 등장으로 이용자들은 시장에 구애받지 않고 스스로 원하는 음악에 접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물론 저작권법을 무기로 한 권리자들의 공격에 의해 그 기술과 서비스는 가능하지만 의미없는 것이 되어 버렸지만 말이다.

다시 얘기하지만, 이는 단지 어떤 저작물을 무료로 향유하는가, 돈을 내고 향유하는가의 문제는 아니다. 예를 들어, IPTV에서 제공하는 VOD 영화 목록은 수시로 바뀐다. 새로운 영화가 추가되기도 하지만, 기존에 서비스되던 영화가 사라지기도 한다. 기술적으로는 이미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디지털 저작물을 삭제할 이유가 없고, 나는 돈을 내고라도 시청할 용의가 있지만 말이다. 그러나 수익 극대화에 맞춰진 IPTV 사업자와 권리자간의 계약서에는 이와 같은 나의 의향이 별로 고려되지 않는다.

최근 북스캔 서비스를 둘러싼 논란도 마찬가지다. 북스캔 서비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종이 책을 보내주면 전자책으로 만들어주는 서비스인데, 만들어진 전자책을 공중에 공개하는 것이 아님에도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를 저작권 위반으로 해석을 한 것이다. 이용자들이 '돈을 주고' 얻은 저작물조차 어떤 방식으로 향유해야 하는지 통제한다. 자신들이 시장에 공급할 능력도 되지 않으면서, 이용자 스스로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노력에도 재를 뿌리는 식이다.

이미 기술은 이용자들의 욕구를 쉽게, 그리고 상호간의 협력을 통해 충족시킬 수 있을 정도로

발전하였다. 사람들은 이 기술과 서비스를 이용해 자신이 원하는대로 향유하고자 한다. 시장에 더 이상 공급되지 않는 저작물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구하거나, 전자책으로 변환하여 태블릿 PC에서 읽고자 한다. 마음에 드는 음악이 있으면 이를 변형해서 자신만의 음악을 만들고, 다양한 음악을 섞어 새로운 음악을 창작하기도 한다. 영화 '스타워즈'의 편집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신만의 편집본을 만들 수도 있다. 단지 수동적으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방식으로 비틀고,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이 진정한 문화 아니던가?

저작권은 보호되지만 창작(노동)자는 보호되지 않는 희안한 현실

"현재 저작권과 관련한 체제는 정보로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고 그럼으로써 상호간의 소통 그리고 문화적 교류까지도 차단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중략)...저작권 소유자라 불리는 사람들은 대개 예술가나 작가가 아닌 경우가 많죠. 그를 소유하고 있는 것은 주로 대기업 등으로 창작자의 이름을 무기로 삼아 권리를 남용하고 있습니다...(중략)...제 생각에는 저작권이 창작자에 대한 보상에 있어서 오히려 가장 좋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난 2010년 말 한국을 방한한 스웨덴 해적당 소속 유럽의회 의원인 아멜리아 앤더스도터(Amelia Andersdotter)의 주장이다.

'굿 다운로더 캠페인'을 위해 만들 어진 한 홍보 영상물을 보면, 영화를 만드는데 감독과 배우뿐만 아니라 촬영, 의상, 조명, 스텐트 등 수많은 스텝들의 땀과 노력이 들어가 있으며 정당한 다운로드로 이들의 꿈과 희망을 지켜주자고 한다. 그러나 그들이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을까? 한 언론 기사에 따르면, 영화 종사자의 평균 연 수입은 고작 1221만원에 불과하다고 한다. 막내급 수습의 연 수입은 300만원도 채 되지 않는다. 과연 이것이 단지 불법복제 때문일까? 2011년 초, 시나리오 작가 고 최고은씨의 죽음이 예외적인 상황이 아님은 우리는 알고 있다. 또한, 지난 2007년 말에 무려 3개월 동안 지속된 '미국작가조합' (Writer Guild of America)의 파업은 창작노동자에 대한 착취 문제가 비단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상황이 아님을 의미한다.



굿 다운로더 캠페인 영상의 한장면

대부분의 소규모 창작자의 상황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 2010년 말 일인밴드 '달빛요정역 전만루홈런' 이진원씨가 세상을 떠나면서 음원 수익의 불공정한 배분 문제가 이슈가 된 바 있다. 멜론, 엠넷 등 음원 사이트나 벨소리나 통화연결음을 제공하는 이동통신사가 수익의 50% 이상을 가져가고, 나머지의 상당 부분은 음반사, 기획사가 가져가는 구조 속에서 실제 창작자인 작곡가나 실연자에게 돌아가는 수익은 10%가 채 되지 않는다. 그러나 독립적인 창작자들에게 더 큰 문제는 대중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통로 자체가 막혀있다는 점일 것이다. 2011년 6월 개봉한 <트랜스포머3>가 전체 상영관의 75%를 장악하고 있는 것처럼, 소수의 거대 문화 자본은 막강한 자본력을 동원하여 대중들의 눈과 귀에 다가갈 통로를 독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승자독식의 구조는 문화 시장이 세계화될수록 심화된다. 불법복제로 인해 손해를 보았다는 하소연도 이들의 얘기일 뿐, 시장에 제대로 접근조차 되지 않는 대다수의 문화 창작자 입장에서는 면 얘기일 수밖에 없다. 이런 맥락에서 문화 자본의 세계화와 소수 거대 문화 자본의 시장 장악, 창작자에게 불리한 수익 구조, 저작권의 세계화, 문화적 다양성의 훼손 등이 동떨어진 문제는 아닐 것이다.

대안적 생산방식에 주목

현행 저작권법은,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 이용자의 자유로운 향유와 소통을 가로막고 있다. 더불어 대다수 창작자의 노동에 보상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역시 아니다. 물론 유통의 독점 문제나 수익 배분의 문제는 저작권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도 있다. 즉, 현행 저작권 체제 내에서도 그 자체로 개선의 여지가 있고,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저작권의 문제 역시 단순히 저작권법의 문제가 아니라, 저작권에 근거한 문화 생산 체제의 문제이기도 하다. 문화 생산물을 시장을 통해 상품화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상을 받는 체제이며, 여타 자본주의 산업부문과 마찬가지로 문화-유통 자본의 독점은 그 필연적인 결과이기도 하다. 따라서 저작권에 대한 대안도 단지 저작권법을 바꾸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훨씬 복잡해진다. 즉, 한 사회에서 문화의 생산과 향유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설계하는 문제이고, 이는 사회의 다양한 층위에서,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 다양한 대안이 제기될 수 있는 문제이다.

예를 들어, 한 사회의 복지 체제와 연결될 수도 있다. 만일 누구나 기본적인 최소 생계에 대한 걱정없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의 복지 체제가 마련되어 있다면, 창작 노동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와 별개로, 지속적으로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창작자들이 보다 많아질 것이다. 보편적 복지와 더불어 창작자에 특화된 지원 시스템도 생각해볼 수 있다. 요즘 많이 회자되고 있는 프랑스의 '앙페르미땅' 제도(문화예술인들에게 일이 없는 기간에도 실업수당을 지급하는)나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예술인 복지법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다.

공적인 투자나 인프라 역시 문화의 창작과 향유의 구조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대학이나 공공 연구소에 의한 의약품 개발과 같이, 지적재산권 제도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많은 공적인 자금이 지식과 문화의 진흥에 투자되어 왔으며, 현재 우리가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지식이나 문화의 상당수도 이렇게 생산된 것들이다. 공공 도서관, 미디어센터, 독립영화 전용관, 공적 지원을 받는 공연장 등의 인프라도 문화적 다양성과 시민 참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적 지원 영역이다. 최근 KBS 수신료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 TV 수상기 보유를 근거로 징수하는 수신료가 그 의미를 상실하고 있다면, 차라리 수신료를 문화 콘텐츠의 생산에 투여하고 이렇게 생산된 콘텐츠는 어떠한 채널을 통해서든 자유롭게 유통, 이용되는 시스템을 상상해볼 수 있다.

물론 저작권법 역시 개정될 필요가 있다.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문화 생산 시스템이 저작권에 기반하지 않는 방식으로 변화하지 않는 한 저작권법 자체를 폐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최소한 이용자들의 문화적 표현과 소통, 혹은 비영리적 창작 과정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허용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누구나 비영리적 목적의 창작행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작권자가 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에서는 무조건 배타적 저작권을 부여하는 현재의 방식에서 등록을 한 창작자에 대해서만 배타적 저작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

공적 영역의 지원은 공유 저작물 창작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었고,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정치 체제의 변화에 따라 매우 가변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이명박 정부 하에서 과거의 문화적 지원 정책들이 모조리 후퇴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말이다. 따라서 민간 차원에서 저작권에 기반하지 않은, 혹은 배타적 권리를 제한하는 문화 창작-유통 모델, 즉 창작자의 노동에 정당한 보상이 가능하면서도 이용자에게 저작물 이용의 자유를 줄 수 있는 모델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이미 영리적, 혹은 비영리 방식의 다양한 모델들이 시도되고 있다. 예를 들어, 저작물 이용 자체를 차단하고자 하는 국내 저작권자들의 정책과 달리, 유튜브(YouTube)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올린 동영상 자체를 차단하지는 않되 광고를 보여주고 그 수익을 권리자와 분배하는 모델을 제안하고 있다. (물론 유튜브 플랫폼에 올려진 저작물을 이용하여 구글이 광고 수익을 독점한다는 비판도 있지만 말이다.) 미국의 음악 서비스 업체인 매그나튠(magnatune.com)은 양질의 스트리밍 서비스는 무료로 오픈하고, 유료 가입자에게는 무제한 다운로드를 허용하며, 창작자와 직접 계약하여 수익의 50%를 제공한다. 매그나튠의 음악은 모두 크리에이티브커먼스 라이선스(Creative Commons License)를 채택하여, 비영리적 이용은 자유롭게 허용하고 있다. 많은 오픈소스 기반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소프트웨어 자체를 판매하는 대신, 소프트웨어 개발에 이용자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한편, 소프트웨어의 이용과 관련된 서비스를 판매한다. <이 영화를 훔쳐라>라는 영화는 누구나 자

유롭게 복제, 배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대신 이용자들에게 자발적인 기부를 요청한다.

아직 이와 같은 대안적인 사업 모델들이 얼마나 지속가능할지는 미지수이다. 저작물의 자유 배포를 기반으로 이용자의 접속을 유도하고 광고 수익을 얻는 모델이 구글이나 네이버와 같은 큰 기업 외에 가능한 수익 모델인지도 의문이고, 기부를 받는 모델 역시 안정성을 담보하기 힘들다. 음원은 무료로 배포하고 공연을 통해 수익을 얻는 것과 같은 파생 수익 모델 역시 우리나라와 같이 공연 시설이 열악한 곳에서는 성공하기 힘들 수 있다. (물론 문화 생산물의 특성상 저작물의 질에 따라 이용자의 수요 자체가 차이날 수밖에 없는 점도 있을 것이다. 현재의 문제는 그 이상으로 진입 자체가 기득권에 의해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만.) 어떤 하나의 모델이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다. 결국 자신에게 적합한 모델들을 발굴하고 찾아나갈 수밖에 없다고 했을 때, 지금 필요한 것은 다양한 실험과 시도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 시도되고 있는 독립영화의 사회적 제작 실험인 <뉴타운컬쳐파티>와 인디음악가의 자립을 위한 '자립음악생산자조합'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대안을 생산하다! 사회적 제작 <뉴타운컬쳐파티>

이상욱 (독립영화 <뉴타운컬쳐파티> 프로듀서)

죽음을 기억한다. 2011년 1월, 최고은. 그리고 6월, 스스로 목을 맨 노동 다큐멘터리스트 숲속 홍길동 이상현. 1월의 그녀는 쌀과 김치를 부탁하는 마지막 메모를, 6월의 그는 마지막 돈 2,300 원으로 PC방에 왔다며 조금이라도 입금을 부탁한다는 글을 온라인에 마지막으로 남겼다. 고통은 그 죽음들의 사회적 맥락과 각자의 죄의식만이 아니다. 나 역시 그들과 다르지 않다는, 나 역시 한 발만 빼꼼하면 그들과 다르지 않은 결말을 맞이하게 될 거라는 예감. 아마 당신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알고 있으니까.

산업으로서의 영화

‘산업’의 지위를 획득한 상업 영화는 국가의 지원과 국민적 관심, 그리고 관객의 성원 속에 규모의 경제를 이룩했다. 가장 자본주의적인 소유관계가 작동하는, 독과점과 수직계열화를 통해 소수 대기업의 지배가 가장 잘 보장된 상업영화계가 공공의 영역으로 치부되어온 것은 아이러니하다. 그런 상업영화에 대한 지원은 궁극적으로 투자 재원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왔다.

이 공공의 지원과 투자를 자신들의 성장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왔으나 극단적인 독과점과 수직 계열화로 진행된 상업 영화계 안에서 최고은은 죽었다. 어째서인가? 그것은 투자와 제작, 배급에 있어, 하다못해 학계와 언론을 구분하지 않고, 누구나 “영화 산업의 발전”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누구도 영화 산업이 누구를 위한 것이며, 어떤 구조를 갖는 산업이며,

그 내부 구성원간의 관계와 분배가 어때야 하는지 질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화려한 빛 뒤의 어둠을 구조적으로 외면해왔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이명박 정부 이후 ‘영화계 좌파 척결’을 위한 각종 잡음들은 일종의 논센스에 가깝다. 영화계 좌우는 그리 다르지 않았다. 적어도 산업으로서의 영화에 대한 합의에 있어서만큼은.

영화 노조를 비롯한 몇몇의 노력이 있어왔다. 2007년 영화노조는 사용자 단체인 제작자협회와 단체협상을 체결했다. 100년의 역사를 갖는 한국 영화 최초의 단체협상. 그러나 곧이어 닥친 영화계의 불황, 명백히 과잉 투자가 원인인 불황 때문에 협약서는 종이조각이 됐다. 불행은 영화 노동자들만의 것이 아니었다. 사용자인 제작자들 역시 불황의 파고를 넘지 못했다. 요즘에 이르러서는 제작자들의 갑인 투자배급사에게 고용된 기획자 혹은 프로듀서로 살거나, 혹은 절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와 계약을 감내하며 대박을 터트릴 그 날만을 꿈꾸며 버티고 있다.

이명박 정부와 그를 탄생시킨 주역들에 의해 좌파로 규정되었던 정부가 스크린쿼터를 비롯한 몇 안되는 한국 영화와 영상 산업에 대한 보호 장치를 폐기하기로 결정했을 때 여론은 영화계에 우호적이지 않았다. 국민들은 한국 영화가 이제 충분히 성장하지 않았느냐고 되물었다. 당연하다. 국민경제의 관점에서 영화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스크린쿼터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이미 충분히 성장했다는 평가와 더 많은 개방과 경쟁을 보장해야 한다는 신자유주의 논리의 공격 앞에 무력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스크린쿼터가 보호하려 한 것은 어디까지나 산업으로서의 영화, 100만 500만 1000만이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되는 영화, 수많은 스텝들의 저임금 무임금 노동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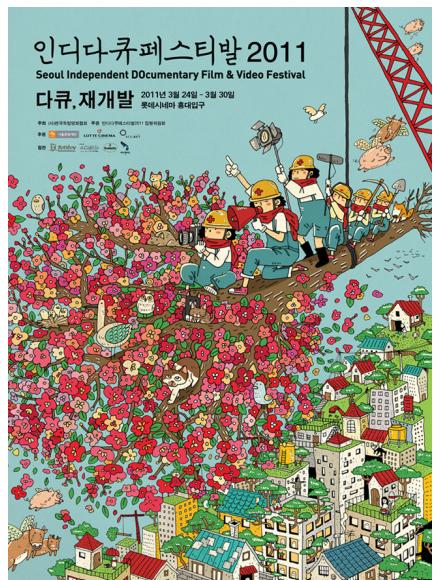
작은 갑과 큰 갑이 합의한 영화, 해외 시장 개척을 통해 자동차 몇 대 만큼의 돈을 벌어들이느냐가 관건인 바로 ‘그 영화’였으니까. 여기에 문화다양성은 잘해야 철없는 소리 혹은 구질구질한 변명에 불과했을게다.

영화산업의 내적 구조와 속성, 분배를 문제 삼지 않는 국민경제의 수준에서 그리고 영화 외부와의 관계에서 그것은 숫자로 환원 가능한 균질한 무엇이었을 것이다. 당연히 이런 관점에서 영화 산업은 규모와 수출액으로 평가되었을 테고, GDP 대비 기여도가 중요했을 것이다. 그러니 영화 산업의 발전을 규모의 경제로 인지해온 영화인들에게 규모와 수출액에서 비교가 안되는 자동차 산업을 위해 영화산업의 희생해야 한다는 논리는 본인들이야 억울해도 당연한 귀结인 셈이다. 오늘에 이르러 극단적인 독과점과 수직계열화를 이룩한 대기업 영화 자본은 그 누구의 견제도 받지 않고 말 그대로 영화 산업을 지배하고 있다. 한국사회의 돈 되는 모든 산업이 그렇듯. 그러니까 현 단계 한국 영화의 가장 큰 문제라는 독과점과 수직계열화는 영화계 스스로가 만들어낸 것, 최소한 영화계의 힘있는 주류들의 암묵적 합의가 만들어낸 작품이기도 한 셈이다.

독립영화

수많은 독립영화인들이 시스템 밖에서 영화를 만들어 왔다. 그들은 때로 날품을 팔았고, 때로는 동료와 친지의 돈과 노동을 품앗이 했고, 또 때로는 그들만큼이나 영화를 만들고 싶어 하는 이들과 기회와 노동을 교환했다. 그렇게 만든 영화는 몇 개 안되는 영화제와 그나마 사라져 버린 한 두 개의 공중파 프로그램과 차츰 동력을 잃어가는 공동체 상영을 통해 대중들 앞에 선보였다. 물론 운 좋은 소수는 상업적 배급 시스템 안에서 살아남았고, 성공했으며 그래서 찬양 받았다.

이런 독립영화인들에게 국가지원은 가뭄의 단비였다. 국가 기관을 통한 제작비 지원과 안정적인 상영 공간의 확보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 지원은 축소되고, 직접 지원은 간접 지원이라는 형태로 독립 영화인들로서는 체감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전환되었다가 희극지왕 조희문 전 위원장의 좌충우돌 덕에 간신히 몇 가지를 살려내는 수준으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파행을



겪었던 독립영화 전용관은 직영 형태로 어쨌든 살아남았다. 한편으로 독립영화인들과 영상활동가들의 오랜 노력을 통해 만들어진 광화문 미디액트를 비롯한 전국의 미디어센터들은 정부기관과 지자체에 의해 독립성을 훼손 받고 있으며, 자립의 길을 택한 미디액트는 여전히 악전고투 중이다.

결국은 국가가 문제였다. 독립영화에 대한 지원이 국가, 그러니까 대기업, 재벌들에게는 않는 소리조차 골라서 하지만 그 외 모든 사회구성원에게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국가가 독립영화의 지원을 좌지우지 하는 한 정권 교체는 곧 독립영화 지원제도의 개편을 의미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남는 것은 더 독립영화 친화적인 정권을 창출하는 것 밖에 없게 된다.

그러나 여기에는 세 가지 함정이 있다. 첫째는 정권을 내 입맛대로 고를 수 없다는 너무도 당연한 사실과 둘째, 좋았던 시절의 국가 지원 역시 그저 단비에 불과했을 뿐, 독립영화 제작 배급의 근본적인 환경을 개선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그 시절 시장논리는 더 강력해졌다는 것. 셋째, 상업 영화계가 그랬듯이 도대체 독립영화가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빠져 있다는 것.

상업영화든, 독립영화든 결국 영화는 만든 이와 보는 이 사이의 대화다. 상업 영화가 자본주의적인 상업 논리에 의해 작동한다면, 독립영화의 대화는 어떤 논리로 작동해야 하는가? 우리 사회의 문화적 취향은 그러니까 주류의 그것 이외에는 불가능한 것인가? 우리는 상업적 영상 산업이 실제로는 대중의 취향을 만들어내기도 한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 또한, 대중의 취향이 가변적인 자기 생명력을 갖고 있다는 것 역시 알고 있다. 따라서 독립영화에 대한 관객의 무관심은 상업 영화계, 그것도 극단적인 독과점과 수직계열화한 영화산업이 구조적으로 재생산하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개별 작품에 대한 호불호를 넘어서서 영화의 장르와 문법, 언어와 스타일은 사회 문화적 수준에서 형성되는 것이니 산업의 구조가 여기에 끼친 영향력을 분명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독립영화는 어떻게 존재해야 하며, 어떤 지향을 가져야 할 것인가? 또 독립영화는 무엇일까? 그것은 상업 영화의 축소판, 그러니까 좀 작고, 가난하고, 그런데 좀 더 시끄러운 무엇일까? 아니면, 독립영화는 상업 영화와는 다른 지평을 갖는 무엇일까?

답하기 어려운 이 질문들을 이런 우회로를 거쳐보자. 90년대 이후 영화 관객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사람들은 더 많은 영화를, 더 자주 보아왔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성장세는 둔화되어왔다. 산업으로서든, 문화 혹은 예술로서든 관객은 영화의 핵심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정체된 관객 수를 증가시킬 수 있을까?

몇 가지 간단한 해법이 있다. OECD 최강이라는 노동시간을 단축하면 된다. 사회적 수준에서

임금을 올리면 된다. 대학등록금을 줄이고 스펙 쌓기를 중단시켜 대학생들에게 영화관에 갈 여유를 주면 된다. 관객이 영화를 볼 수 있는 시간적이고 경제적인, 정서적인 여유를 더 많이 가질수록 영화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 영화만이 아니다. 이른바 문화생활 전반이 더 확장될 것이고, 더 많고 다양한 경험과 취향을 찾게 될 가능성 역시 더 높아진다.

애초의 문제로 돌아가 보자. 독립영화 제작 배급의 환경은 어떻게 개선될 수 있나? 직설적으로 말한다면 영화 산업을 넘어 문화 산업 일반의 독과점을 해체하면서다. 상업 논리로만 무장된 산업이 문화생활을 지배하는 것을 제어함으로서다. 문화예술이라는 것이 국민경제의 논리에 입각한 그리고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독과점과 수직계열화에 통해 규모를 이룬 반면 편벽해진 ‘산업’의 논리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서다. 최소한 만들고 향유하는 생산과 소비, 혹은 창작과 수용의 관계가 ‘산업’의 밖에도 형성됨으로서다. 혹은, 산업 그 자체의 구조가 다양성을 전제할 수 밖에 없을 때다.

그렇다면 독립영화란 무엇인가? 또 하나의 우회로가 있다. 영화 산업의 발전이란 무엇인가? 영화 산업의 발전은 어떻게 평가되어야 하는가? 적어도 이런 항목들 ‘도’ 존재해야 할 것이다. 산업 내 종사자들에게 적절한 분배가 이뤄지는가? 산업 내 각 영역에 최소한 자본주의적인 수준의 공정성은 지켜지고 있는가? 산업이 국민들, 최소한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양적, 질적 수준은 적절한가? 또 있다. 해당 산업은 여타 관련 산업과 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해당 산업은 해당 사회에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가?

차라리 국가의 역할은 이쯤에 있었을 것이다. 문화 예술에 돈을 매겨 더 많이 벌어오는 영역에 세금을 쏟아 붓는 것 말고, 시대를 역행하는 이념과 정치적인 통제 말고, 국민들이 더 많은 문화 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더 다양한 취향과 향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문화 산업 내부의 구조와 분배, 그것이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경로를 풍부하게 하는 것. 그러나 우리의 국가는 다른 길을 걷고 있고, 물론 우리는 거기에 합의했다.

사회적 제작, <뉴타운컬쳐파티>

이 글의 애초 주제는 <뉴타운컬쳐파티>라는 작품의 독특한 제작 방식, 즉 사회적 제작을 소개하는 것이다. 나아가 대안 문화예술 생산이라는 문제의식에 이러한 시도가 갖는 의의를 설명하는 것이다. 그러나 길고 긴 서론을 거쳐야만 했다. 왜냐하면 지나치게 익숙한 몇 가지 관점을 재고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제 간략한 본론에 들어가 보자.



프로젝트 <뉴타운컬쳐파티>는 십시일반 돈을 모아 영화를 만든다. 만드는 영화는 1년 뒤 공개 라이선스로 전환되어 사회에 환원된다. 수익금은 독립영화제작지원금을 비롯한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며, 참여한 영화 노동자, 예술인들에게 최대한 정당한 봉사를 주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

프로젝트의 주체에 의해 “사회적 제작”으로 명명된 이러한 제작 방식은 어떤 의의를 갖는가? 그것은 상업의 논리, 산업의 논리, 그나마도 대단히 제한되고 편향된 논리로 구성된 영화 그 자체에 질문을 던진다는 점이다. 영화를 만들고 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영화를 만드는 구성원들 간의 분배는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가? 영화로 통해 파생되는 가치는 영화 밖과 어떻게 재분배되어야 하는가? 영화를 만드는 이와 보는 이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형성되어야 하는가? <뉴타운컬쳐파티>의 사회적 제작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또 다른 답을 찾는 과정이다.

동시에 <뉴타운컬쳐파티>의 사회적 제작은 앞서 제기된 독립영화의 과제에 대한 실험이며 도전이기도 하다. 독립영화 제작 배급 환경의 근본적 개선. 독립영화인 개개인을 제외하면 국가 지원에만 국한된 독립영화 제작비를 시민사회 혹은 관객들을 중심으로 한 자발적 참여를 통해 조달해 보는 것. 1만원 혹은 클릭 1번으로 영화 만들기에 참가한 다수의 사람들이 공동 제작자가 되어 함께 만들고, 홍보하고, 배급하고, 함께 보는 것. 수익의 공공적 사용, 나아가 독립 영화 스스로의 힘으로 지속 가능한 독립영화의 구조를 모색하는 것. 그럼으로써 상업적 시스템으로부터 배제된 독립영화 배급의 또 다른 활로,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

또한, 독립영화가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다. 편향된 산업의 논리에서 벗어나 영화를 만들고 보는 것. 영화 만들기를 독립영화 제작자 개인의 봉사에서 좀 더 대중적이며, 사회적인 차원으로 확장하는 것. 영화 보기에도 상품으로서의 영화를 소비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 그럼으로써 독립영화에 사회적 맥락을 추가하는 것.



2011년 4월 16일 <뉴타운컬쳐파티> 제작발표회
[출처] <뉴타운컬쳐파티> 홈페이지 (ntcp.kr)

<뉴타운컬쳐파티>의 이런 실험은 사회적 제작 2호인 <강, 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최초의 시도로서의 <뉴타운컬쳐파티>가 사회적 제작이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차원과 의미를 확장하고 모색하는 것에 집중한다면, <강, 정>은 급박한 사회적 문제에 독립영화가 참여하는 방법에 방점을 찍는다. 제주 강정 마을 투쟁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다수의 창작자가 사회적 제작의 모델을 통해 제작하고, 만들어진 영화를 마찬가지로 사회환원하고 수익금을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강, 정>은 그렇게 사회적 실천으로서의 독립영화 제작 배급과, 향유의 또 다른 길을 사회적 제작을 통해 찾고자 한다.

따라서 <뉴타운컬쳐파티>의 사회적 제작이 갖는 더 중요한 의미는 그것이 한 작품에 그치지 않고, 독립영화계 전체에 또 다른 가능성은 모색하는 시도로 이어진다는 것, 그럼으로써 하나의 사회적 시스템을 지향한다는 것, 나아가 이런 시도와 성과, 시스템화를 바탕으로 궁극적으로는 국가와 대기업 자본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영화 정책과 산업에 또 다른 가능성은 없는지 탐진하는 데 있다.

마지막으로 <뉴타운컬쳐파티>의 사회적 제작이 갖는 또 하나의 의의는 그것이 “사회적 산물의 속성”에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신문기자가 자료를 참조하고, 인터뷰를 해서 만들어진 기사의 지적 소유권은 누구의 것일까? 그 신문기자가 읽고, 쓰는 동안 밥하고, 길 닦

고, 청소하고, 인쇄하는 사람들의 기여는 어디에서 실현되는가? 인터넷과 SNS를 통해 실현되는 자발적 개인들의 창조적 에너지와 노동의 성과는 누구에 의해 소유되고, 분배되어야 하는가? 하나의 산물이 생산되는데 있어 갖는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차원은 어디에서 실현되어야 하는가? 〈뉴타운컬쳐파티〉의 사회적 제작은 영화라는 산물이 만들어지고, 배급되고, 향유되는 과정에서 다양하게 발생하는 이 사회적 차원의 기여를 인정할 필요가 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사회 환원이라는 방식으로 실현하는 것은 어떤지 조심스럽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너와 나는 다르지 않다

최고은의 죽음 이후 예술인 복지법이 화두가 되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자 문제가 훨씬 복잡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예술인 복지법의 시행에는 두 가지 선결 조건이 있었기 때문이다. 예술인들의 창작 행위를 노동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 그리고 유사한 처지에 있는, 이를테면 특수고용 노동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 즉, 영화를 떠나 범사회적으로 노동을 노동으로 인식하고, 노동에 대한 정당한 지위를 부여하지 않는 한 예술인 복지법은 불가능하거나 혹은 불균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물론 문제는 또 있다. 영화 산업의 구조와 성격, 내부 분배 구조를 변화시키지 않는 한 예술인 복지법은 그저 땀질 처방으로 기능할 수밖에 없으리라.

그래도 여전히 남는 것이 있다. 숲속 홍길동 이상현의 죽음이 그렇다. 그가 만든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들의 투쟁을 담은 수백 개의 영상들은 어째서 그에게 생존을 보장해주지 못했을까? 어째서 그의 행위는, 노동은, 창작은 그에게 삶을 지탱할 힘으로 이어지지 못했을까? 우리는 여기에 답을 내릴 수 있는가? 우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알 수 없다. 아니, 우리는 오랫동안 이런 현실을 쉽사리 바꾸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성장에 매몰되어 왔다. 노동자 혹은 서민들은 열심히 노력해서 상류계급으로 진입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며, 가혹한 경쟁을 승인해왔다. 그러나 최근 복지가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더 이상 계급 계층 이동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 가능하다 해도 그 것은 너무도 희박하며, 너무 많은 자원과 희생을 필요로 한다는 것. 그러니까 성장도 좋지만 이제는 분배도 필요하다는 자각이 우리 사회에서 형성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영화계 역시 필요한 것은 영화인 그리고 영화 노동자가 처한 현실을 공동으로 해결하는 것일테다. 그 첫 단추는 실은 같은 처지에 있는 각자의 문제를 공동의 문제로 인식하는 것일테다. 그러니까 수백의 영상을 남기고 삶을 마감해야 했던 그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다.

독립영화의 사회적 제작이 갖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그러니까 독립영화를 만들고, 배급하고, 수용하는 것이 실은 각자의 문제가 아니며, 독립영화가 갖는 사회적 차원과 의미를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보자는 제안에 있다. 독립을 위한 자립. 자립을 통한 독립. 그것은 독립영화가 애초가 갖고 있고, 가져야할 사회적 의미를 실현하는 것을 통해 구현될 것이다.

음악가와 생활협동조합, 그 문제의식에 관하여

단편선 (음악가, 자유기고가)

#. 1

이를테면 우린 종종 이런 상황들과 맞딱뜨리게 되는 것이다. 어젯밤 공연이 끝나고 늦게까지 뒷풀이를 하다 친구 녀석 하나 데리고 새벽에 집에 들어온 아침. 살짝 숙취가 남은 상황에서 친구와 할머니가 차려주신 아침밥을 먹으며.

“(고시원에 살고 있는 친구에게) 야, 집밥 먹을 수 있을 때 많이 먹어. 고시원에선 밥하고 김치만 주잖아?” “(갑자기 관심을 보이는 할머니가) 아니, 고시원이면 무슨 고시공부라도 하고 있어요?” “(약간 뻘쭘해진 친구가) 아, 저 고시 보는 건 아니고 대구에서 올라와서 고시원에 살고 있는 거예요.” “(괜히 끼어들고 싶어서) 얘가 원래 음악하는 애인데요, 기타 되게 잘 쳐요. 서울에 밴드하려고 올라 온 거예요.” “(갑자기 시무룩해진 할머니) 아니, 밴드는 왜 한다냐? 음악은 취미로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잠시간 정적이 흐르고선.

“…그런데 우리 손자하곤 어떻게 알게 된 사이인가?” “아유, 할머니. 홍대앞에서 음악하다가 알게된 친구에요.” “단편선이 홍대앞에선 아는 사람 그래도 많은 편이에요.” “아니, 음악을 해서 성공을 해야지 아는 사람만 많으면 뭐하나...”



2010년 12월 열린 두리반 투쟁 1주년 공연 – 단편선

[출처] <뉴타운컬쳐파티> 홈페이지 (ntcp.kr)

뭐, 다 인정할 순 있겠다. 비단 음악 하는 사람만 겪는 문제겠는가? 나잇살 먹고선(그래봤자 스물여섯이지만) 집에 앉혀사는 손자에게 할머니가 취할 수 있는 태도란, 좌우지간 그런 것일 공산이 크다. 다만 문제는 어찌되었건 앉혀사는 것 빼곤 제 밥벌이 스스로 하는 손자를 아무 직업 없는 백수 내지는 한량 이상 이하도 아니라 생각한다는 것! 우리 할머니는 물론 이런 손자에게 밥을 차려주신다는 것만으로도 좋으신 분임은 분명하지만, 한편으론 불행히도 ‘음악가도 일종의 직업이다’라는 생각 자체를 가지지 못하신 분이기도 하다. 아니, 클래식이라면 또 몰라. 그런데 하필이면 인디라니! 그래서 음악가이자 자유기고자, 공연기획자, 활동가 등 여러 명패 아래 활동하고 있는 (백수가 아닌) ‘프리랜서’인 나는 웬지 집안에선 마치 제대로 된 직업이 없는 사람인 양 계속 직업을 가지라는 압박을 받는 조금 이상한 상황이 계속 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할머니와 앉혀사는 손자는, 가족관계로 얹혀있는 사이라 일반화시킬 수 있는 상황은 아니겠으나 다른 사회적 관계를 상정해봐도 그 인식이란 게 실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심지어는 소위 ‘음악가’ 내지는 ‘음악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음악가도 일종의 직업이다’란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경우가 둘로 나뉘긴 한다. 하나. 음악가는 예술가다. 다른 하나. 음악은 돈을 벌기 위한 활동이 아니라 ‘가외’ 활동이다. 둘 사이엔 언뜻 간극이 있어 보이지만 실은 둘이 공모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그런 의미에서, ‘음악가’라는 직업을 가장 앞에 내세우는 이로서 가장 듣기 싫은 말은 이것이다. “다른 일 하면서 음악하면 되잖아?” 이렇게 말하는 바탕에는 몇 가지 전제가 깔린다. 하나. (창작과 연주를 포함한) 음악활동은 노동이 아니라 잉여짓이다. 둘. 음악활동은 창조적인 측면이 강조되는 활동이기 때문에

돈과 시간이 많이 들지 않는다(혹은 들일 필요가 없다). 셋. 잉여짓을 하는 이들은 사회적으로 보았을 때, 어쨌든 별로 쓸 데 없다. “생산적인 일을 하면서 음악을 하든 말든 해라!”

…이쯤에서 어떤 이들은 “물질 노동과 비물질 노동이 어쨌느니… 생산적인 노동과 생산적이지 않은 노동이… 노동의 개념이…” 같은 식으로 알아먹기 힘든 이야기들을 늘어놓을 테지만 내 관심사는 아니다. 다만 앞서의 전제에 대해 몇 가지 할 말은 있다. 먼저 ‘음악활동은 노동이 아니라 잉여짓’이다?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음악가’라는 직업 자체가 엄밀하게는 ‘노동자’보다는 ‘자영업자’에 오히려 가까운 까닭에서다. 게다가 눈에 보이는 생산물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억지로 “우리도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하고 있다!” 라 우길 필요도 없겠다(어차피 사람 삶이 꼭 생산적이기만 한 것도 아니지 않은가?).

오히려 문제는 다음. 음악활동이란 잉여짓이건 뭐건 간에 돈도 시간도 적잖이 듣다는 것. 이를테면 악기를 사는 것부터도 문제지만 밴드가 어느 정도 구색을 갖출 만큼의 실력을 쌓기 위해 선 꽤 오랜 기간—이라 쓰고 최소한 3~4년 이상이라 읽는다—연습을 해야함은 물론 시간 당 대략 15,000원 선인 연습실을 빌리기 위해 돈도 벌어야 하고, 게다가 조그맣게 라도 음반을 만들 요량이라면 (통상적인 기준에 따라) 최소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의 돈과 몇 개월간의 시간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노력을 해봤자 잉여짓인 것을 크게 부정할 수도 없는 탓에 들인 노력에 대해 남들이 인정해줄 것이란 기대도 할 수 없는 것이 지금의 상황. 당연히 ‘매니아’ 한 음악일수록, ‘마이너’ 한 장르일수록, 활동환경이 ‘인디’ 혹은 ‘언더그라운드’에 가까울수록 상황은 악화되기 마련이다. 게다가 운이 좋아 투잡을 할 수 있거나—요즘 같은 시대라면 가외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으면서도 적절한 생활비를 벌 수 있는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다는 것이 오히려 운이 좋은 것이 아닌가?—집에 돈이 많은 이가 아니라면 이런 상황들은 온전히 개인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실제로 인디씬에서 활동하고 있는 많은 음악가들이 계약직 내지는 아르바이트 등 이른바 불안정노동에 종사해가며 번 생활비를 가지고 음악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하지만 다 ‘쓸 데 없는 것’ 아니냐고? 그렇다. 쓸 데 없는 것들일 수도 있다. 그런데 쓸 데 없는 것들은 그럼 사라져야 하는가? 우리 음악가들의 삶은 없어져도 좋은 것인가? 어디서나 희망은 젊음에서 나온다. 초기 이집트 민주화 시위를 조직했던 청년 운동가들이 시위 집결지에 대한 허위정보로 경찰의 감시와 방해를 따돌리고, 빈민 지역에서 50명으로 시위를 조직하여 해방광장에 도달할 때는 수천 명이 되었다. 반혁명세력이 무력을 휘두를 때 그들은 쇠망치로 돌을 깼고, 바리케이드를 만들었다. 그들에게 페이스북과 트위터는 돌맹이와 별 차이가 없었다. 늙은 야당 인사들은 현재 집권층에 의해 길들여질 것이라고 예측하는 이들의 자세가 신선하다. 기독교도 여성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결작이다. “제대로 된 정부이기만 하다면 원숭이가 대통령이라도 상관없다.”

#. 2

“지역에서 활동하는 소규모 음악가들의 생활협동조합”을 지향하고 있다는, 일명 “자립음악생산자조합.” 어찌되었건 우리가 선택한 우리의 삶—그것이 ‘매니악’ 하건 ‘마이너’ 하건 ‘인디’ 하건 ‘언더그라운드’ 하건 간에—이 비록 잉여짓에 불과하고 쓸 데 없는 것일지라도 우리에겐 그럼에도 계속 이렇게 살고 싶다는 이유로, ‘하고 싶은 음악을 하고 싶은 방식으로’ 하고 싶다는 이유로 이름만 들어도 웬지 ‘운동’ 냄새 풀풀 나는 ‘조합’ 이란 것을 결성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조합이란 것이 실은 별 것인가? 경쟁이 아닌 상생을 도모한다는 것. 협동과 협력을 바탕으로 모두가 주인이 되어 운영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연주하고 리스너들과 만나고 삶을 살아갈 바탕이 될 장(field)를 스스로 만들어나가겠다는 것.



2010년 12월 열린 두리반 투쟁 1주년 공연 - 한밭

[출처] <뉴타운컬쳐파티> 홈페이지 (ntcp.kr)

여기서 가장 핵심이 될 키워드는 '장(field)'이다. 언젠가 우리는 "우리에게 더 많은 언더그라운드를!"이란 모토를 내세웠던 적이 있는데, 이 모토 속의 '언더그라운드'란 바꿔 말하자면 '국가와 자본에 종속되지 않은', 즉 국가의 논리 혹은 자본의 논리에 종속되지 않은 '자신의 논리' 혹은 '언더그라운드의 논리'로 돌아가는 장(field)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언더그라운드의 논리'란 무엇인가? 나는 이것의 정확한 형태를 한정하는 것이 크게 의미있을 것이란 생각을 하지 않는다. 우리가 국가의 논리와 자본의 논리를 받아들일 수 없는 까닭은, 그것이 너무 '하나의 길'을

강요하는 까닭에서가 아닌가? 특히 자본의 논리. "화폐를 재생산해라"란 논리는 음악의 논리와는 너무 그 간극이 깊다. 앞서 형태를 한정짓지 않겠다, 우리 사회의 모든 면면에서 작동되고 있는 이 자본의 논리를 극복하기 위한 기본 가이드로서 우리가 제시하는 것은 '상생'과 '협동협력',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가 궁극적으로 만들어내야할 것은 매스 미디어로 대표되는 '메인 스트립'의 외부, 프로파간다에 가까운 근대적인 대중-매체를 경유한 음악활동이 아닌 다른 장(field)을 통한 음악활동이다.

이에 대해 구성원 중 한명인 음악가 한밭은 지역, 생활, 민중의 가치를 지향해야한다 역설했다. 이러한 지향은 우리의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할 수 있겠는데, 지향하는 가치들은 각각 메인스 트립의 가치와 대립하고 있기도 하다. '광역' 이 아닌 '지역' . '심미' 가 아닌 '생활' . '대 중' 이 아닌 '민중' . 확실히 우리가 꿈꾸고 있는 것은 수동적인 '대중' 들에게 규모있는 '매 스 미디어' 를 통해서 '음악 상품/콘텐츠' 를 공급하는 현재의 유통구조를 넘어 그 자체로 주체 적인 청취자인 '민중' 과 직접 '지역' 에서 만나 지역에서 노동하며 살고 있는 이들이 음악가 들과 순환-공생하는, 말하자면 '노동-문화의 선순환' 을 만들어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이것은 장기적인 목표일 것이며, 단기적으로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자립공간구축 2) 소규모음반제작지원 시행 3) 자립공연기획 4) 자립포럼/세미나기획 5) 공정음 원유통플랫폼 운영 6) 분기별 자립컴필레이션 제작 7) 상시적인 문화단체, 지역단체, 학술단체, 노동단체, 정당 등 연계활동 8) 지역 독립공간, 지역단체들과 적극적인 유니온(연대) 관계 구축 9) 팔도자립음악가네트워크 구축. 이에 대해 세세하게 설명하는 것은 무리겠으나 '소규모음반제 작지원 시행' 정도만을 예로 들자면, 조합의 구성원들이 직접 구축한 자금 중 일부를 음반을 기획하고 있는 조합 구성원에게 마이크로 크레딧과 비슷한 형태로 대출하여 큰 돈이 없이도 음반을 제작할 수 있게 돋는 사업이다. 그래봤자 10~50만원 정도되는 어찌보면 큰 돈을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나, 실은 음악가들 중 적잖은 수가 아르바이트나 계약직/비정규직, 영세 자영업자 등 불안 정노동으로 분류될만한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탓에 몇십 만원 정도도 지출하기 버거워하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이 제도를 시행하기 시작한 2011년 초부터 꾸준하게 지원을 받는 음악가들이 늘고 있으며, 국가나 기업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음악가들이 스스로 모은 공금에서 일부를 활용해 음반을 만들고 있는 까닭에 음악가 자신도 보다 책임있는 주체로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외의 사업에서도 우리는 1차적으로 음악가 자신이 1차적으로 음악의 생산은 물론 장소 구축, 유통, 홍보까지 주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준과는 다른 방식의 플랫폼을 만드는 것을 도모하는 한편, 2차적으로 한밭이 제안했듯 지역, 생활, 민중의 가치를 사업 속에 녹여내 결과적으로 국가/자본의 논리와는 다른 논리로 운영되는 장(field)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우리가 얻을 것은 무엇인가? 서두에 나는 ‘(우리가 하는 음악이란 어쩌면) 쓸 데 없는 것들일 수도 있다’ 라 썼다(물론 이 가정에 내가 완전히 동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곧바로 물었다. “(…) 쓸 데 없는 것들은 그럼 사라져야 하는가? 우리 음악가들의 삶은 없어져도 좋은 것인가?” 내가 이 지점에서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하나다. “우리가 만드는 것들이 쓸 데 없건 말건 그런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 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은, 그럼에도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와 자본의 논리 속에 우리 ‘쓸 데 없는 것들(이를)’ 잉여 ‘라 부를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 ‘비빌 언덕’ 을 한 사람 한 사람의 책임있는 ‘주체’ 로서 만들어나가는 것, 그래서 국가와 자본의 논리 속에 ‘옳지 않았던’ 우리들을 새로운 논리 속에서 ‘옳은’ 이들로 만들어나가는 것이 우리가 얻을 바로 그것이다. 요컨대, “우리는 주체다.” “우리는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이다.” “우리는 살아갈 자격이 있다.” “우리는 모두 옳다.”

#. 3

나는 지금까지의 문제의식에 하나를 더하고 싶다. 일전에 한국 기본소득 네트워크에서 주최한 학술대회에서 나는 <공공재로서의 음악을 향해>라는 제목의 글에서 비록 완성된 개념은 아니지만 음악가와 리스너, 그리고 나아가 음악가와 사회와의 소통을 위한 하나의 가설로서의 ‘음악권’이라는 개념을 제시해본 적이 있다. 이는 글의 바로 앞 단락에서 서술한 협동조합으로서의 고민을 넘어선, ‘제도적’ 인 측면에서의 고민들이다. 그 글의 일부를 인용한다.

- 1) 모든 사회 구성원은 자유롭게 음악을 창작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2) 모든 사회 구성원은 자유롭게 음악을 공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3) 모든 사회 구성원은 자유롭게 음악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4) 모든 사회 구성원은 자유롭게 음악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단순한 서술들에 불과하지만 이에는 몇 가지 함의가 있는데, 1) 창작의 권리에 위해 : 모든 사회 구성원이 음악을 창작하는 것을 돋기 위해 각 지역마다 싸고 간편하게 녹음이 가능한 스튜디오 등의 창작 인프라를 사회적 차원에서 제공해야 한다. 2) 공연의 권리를 위해 : 지역마다 지역민이 쉽게 대관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연 시설을 사회적 차원에서 제공해야 한다. 3) 향유의 권리를 위해 :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를 공공화 시켜 사회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출판(publishing)된 모

든 음악에 대해 접근 가능하도록 하며 또한 거점 지역마다 음반, LP 아카이브 등을 설치하여 설치한다. 4) 이용의 권리를 위해 : 저작인격권에 대한 존중을 전제로, 다만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서 영리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개인적인 복제, 공연, 방송, 전송을 허용한다.



2011년 1월 열린 달빛요정 주모공연 - 밤섬해적단

[출처] <뉴타운컬쳐파티> 홈페이지(ntcp.kr)

아직 정리된 개념은 아니기에 이에 대해 세세하게 부연하는 것이 크게 의미있다 볼 순 없겠다. 이는 조합 내에서 합의된 바가 아니지만, 개인적으론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노동-문화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사회가 만들어지기 위해 꼭 정립되어야 하는 사항들이다. 이는 분명한 쟁점을 내포하고 있는데, 이를테면 ‘창작의 권리’와 ‘공연의 권리’와 동일하게 ‘향유의 권리’와 ‘이용의 권리’를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요컨대, 이는 음악가들의 ‘편’을 들어주기 위한 기획도, 청취자들의 ‘편’을 들어주기 위한 기획도 아니며, 그보다는 사회 전반으로 보았을 때 모두가 과연 어떻게 하면 더욱 자유롭게, 자율적으로 창작하고, 공연하고, 향유하고, 이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물론 이에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음악이 공공재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 수록, 음악가의 삶과 생활 역시 공공적인 영역에서 많은 부분을 감당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를 프랑스의 앙떼르미땅 제도와 같은 형태로, 문화예술인에게 실업급여 조건을 완화시키는 등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도 있겠으나 개인적으로 강하게 지지하는 것은 “어떠한 자산 십사와 노동 요구 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조건 없는 소득”인 기본소득 제도이다(이에 대해선 인터넷 매체 《프레시안》에 기고한 필자의 글 <달빛요정·최고은…다시 비극을 반복할 텐가?>를 참조하길 바란다).

#. 4

한정된 분량에 많은 이야기를 담으려다 보니 다소 두서가 없긴 하나, 난문 속에서 독자들이 대략의 흐름이라도 파악해주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앞서도 말했듯 두 번째 단락에선 협동조합으로서 추구할 것들, 운동으로서 끌고 나가야할 것들에 대해 썼다면 세 번째 단락에선 제도적인 측면에서 해결해야될 것들에 대해 간략히 썼다. 아직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진 않았으나 꽤 덩어리가 큰 고민인 것은 분명하다. 이는 역설적으로, 최소한 음악계에선 이러한 고민들이 구체적인 형태로 제시된 적이 드물었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한다.

작년 여름과 가을 사이쯤, 우리 구성원들은 한 페스티벌에 음반과 여러 중고 서적들을 판매하기 위해 참여한 적이 있었다. 그 페스티벌을 준비한 주체는 우리와는 다소 다른 형태로지만, 어찌 되었건 10년 정도 협동조합의 방식으로 독립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공중캠프’라는 집단이었는데 마지막 공연이 끝나기 전, 무대에 오른 한 구성원이 “10년 동안 꿈꾸던 것을 드디어 이루었다” 라 말하는 것을 듣고선 우리는 모두 여운이 긴 감동을 받았다. 페스티벌이 끝나고 부스를 정리하던 때, 우리 조합의 구성원 중 한명은 내게 문득 “우리도 10년 동안 열심히 해보자” 라 말한 것이 기억에 유독 남는다. 아직까지 방만할 수도 있는 문제의식들, 우리는 이것들을 어떻게 정리해나가고 어떻게 구체화시킬 것인가? 우리는 지금 출발선에 섰다.

Section 010. 이슈

누군가 나를 감시하고 있다 / 장여경
인터넷 실명제 이제 그만! / 정민경
표현의 자유,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 장여경
사유 소프트웨어의 ‘이용자 감옥’에서 ‘탈옥’ 하기 / 조동원
서체의 이용행위의 저작권 침해여부 판단과 제언 / 정진근

누군가 나를 감시하고 있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사찰 파문은 잣아들었다. 때마침 연평도 포격 사건이 발발하였다고까지 말할 필요는 없겠지만, 한창 점화 중이던 핫이슈의 분사구가 지난해 그 시점 전후로 닫힌 것은 사실이다. 국무총리실의 한 부서가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황당한 소식이 여당 중진 정치인들에 대한 사찰 논란으로 이어졌다.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들이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파괴하면서 증거를 은폐했고 청와대 직원이 대포폰을 사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커져갔다.

폭로된 사찰 수첩의 내용에는 ‘BH(청와대) 지시사항’이라는 문구 뿐 아니라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 등 여권 핵심 인사들에 대한 사찰 정황도 담겨 있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다. 재수사는 없다는 방침을 거듭 밝히며 검찰이 베티는 가운데 ‘몸통’ 없이 직원들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끝났다. 이렇게 사찰 파문은 잣아들었다.

휴일 전날 후다닥 발표하여 여론의 뜻매를 고의적으로 피한 정황이 다분한 2010년 감청 통계에는 명백한 사실이 담겨 있었다. 감청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언론은 이를 새로울 것 없는 소식으로 취급하고 있다. 우리는 둔감해졌거나 이미 알고 있다. 대통령이 싫다는, 〈PD수첩〉 작가의 개인 메일을 검찰이 언론에 공표한 이후로 우리에게 이메일의 비밀성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었다. 그러니 스스로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

정권이 바뀌면 조심할 일이 없어질까? 사찰과 감청을 바라보는 항간의 주요 관점은, 이 문제를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로 취급하는 것이다. 특히 사찰은 현 통치권력이 정적(政敵)을 다루는 방식의 문제로 보여진다. 이명박 정부의 치사함은 정적을 향한 칼끝이 정치권과 언론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점에서 두드러진다. 시민 일반도 감시에서 피해갈 수 없다.

대통령, 청와대 인사나 장관들에 대한 게시물을 잘못 올리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심의 후 삭제되거나, 현직 장관으로부터 고소당하거나 집요하게 감시 받을 각오를 해야 한다. 게시판이나 블로그는 물론이고 트위터도 예외가 아니다. 그런데 정말 큰 문제는 이런 사태가 이 정부에서 끝나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다.

모바일 생활은 일상 그 자체이다. 우리의 스마트한 전화기로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친구와 연락하는 것도, 회사 업무도, 쇼핑도, 은행거래도 순식간에 처리된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가 이 전화기 안팎에 모두 기록된다. 이 막강한 기계의 세계에서 그것은 필연적인 기술의 진화이다. 동시에 우리의 근심도 깊어간다. 애플의 아이폰이 사용자의 위치를 추적하여 결과를 보관하고 있다는 소식이 우리를 화들짝 놀라게 한 것은 그 때문이다.

갈수록 기승을 부리는 ‘신상 털기’도 걱정스럽기는 마찬가지이다. 신상 털기는, 스스로 공개한 정보로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시대적 모순이다. 온라인 검색의 능력이며 다중이 가지고 있는 위력이다.

온라인 활동의 모든 것이 저장되던 시대의 끝에는 오프라인 활동도 모두 온라인으로 수집 및 집적되는 시대가 다가올 것이다. 2013년부터 우리는 병원, 은행, 이동통신대리점, 법무사, 중개사 사무소를 갈 때마다 전자주민증을 ‘빼’ 대야 한다. 그 정보는 어딘가로 흘러가서 집적될 것이다. 그렇게 편리함의一面에 감시 사회의 어둠이 짙어간다.

우리가 할 일이 조심하는 것 밖에 없을까? 감시는 이미 일상이다. 우리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잃어버리고 있다. 해결책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스마트폰의 편리함 이면에서 이루어지는 위치정보 추적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2005년 안기부 X파일 이후로도 국정원의 감청 권력 통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부끄러움을 가져야 한다. 사찰 파문은 여전히 종료되지 않았음을 선언해야 한다. 전자주민증의 도입은 막아야 한다. 우리가 감시당하는 것이 아니라 ‘역감시’ 해야 한다. 시민 권력을 되찾아야 한다.

* 이 글은 2011.5.12. 미디어오늘에 기고한 글입니다.

인터넷 실명제 이제 그만!

정민경 (정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사용자가 많은 인터넷 웹사이트에서는 주민등록번호와 실명을 확인시켜주어야만 글을 쓸 수 있다. 네티즌들이 주로 사용하는 한국 웹사이트는 대부분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을 것이다. 이 제도가 바로 ‘제한적 본인확인제(인터넷 실명제)’이다. 2007년부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일 접속자수가 10만 명이 넘는 사이트에는 주민등록번호와 실명을 확인해야만 글을 게시할 수 있게 되었다.

인터넷 실명제가 하는 말, “니 글은 위험해”

인터넷 실명제가 시행된 지 4년이 흘렀고 그 동안 끊임없이 인터넷 실명제 찬반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인터넷 실명제 논쟁이 있을 때마다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는 것은 악플, 마녀사냥 등 인터넷 댓글 문화에 관한 문제였다. 연예인이 악플로 인해 괴로워 자살을 했다는 논란, 개똥녀 사건, 타블로 학력논란 등의 사건이 일어 날 때마다 인터넷실명제는 도마 위에 올랐다. 사실 악풀이나 마녀사냥으로 문제가 되었던 위와 같은 사건들은 모두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시행하는 웹사이트에서 일어난 사건들이다. 또한 인터넷 실명제를 시행하고 악풀이 줄었다거나 범죄행위가 줄었다는 효과를 증명해줄 통계도 없으며 오히려 위축효과로 인해 댓글 자체가 줄었다는 결과만 낳았다. ‘위축효과’가 의미하는 것은 인터넷실명제가 우리나라 헌법에서 보장된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물론 표현의 자유가 무제한적인 것은 아니다. 기본권에는 개인의 인격권, 프라이버시권 또한 보장하고 있기에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표현이 이루어져야 한다. 개별 상황마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도 될 만한 당위성이 있는지 따

져봐야 하는 문제인 것이다. 그러나 인터넷 실명제는 모든 글에 대해 위험하다고 추정하고 있다.

인터넷실명제는 웹사이트가 자발적으로 본인확인제를 시행하여 이용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강제하여 이용자의 판단 여부와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본인확인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도 침해하는 제도인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국가가 한 개인이 쓴 글에 대해 보복이나 탄압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해 5월 방한했던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프랭크 라뤼는 기자회견에서 “인터넷 실명제가 사생활권은 물론 개인의 표현의 자유, 특히 정부에 대한 비판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밝힌 바 있다.

게다가 인터넷실명제는 익명성의 순기능을 부정하고 역기능만 내세워 만든 제도이다. 익명성은 표현의 자유에 따라오는 필수 요소이며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와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익명이기에 오프라인에서 이야기하기 어려운 고민들을 온라인에 털어놓기도 하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소수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다. 익명성은 소중한 권리이다. 그러나 인터넷 실명제는 익명성을 무책임하다고 추정하고 있다.



그림: 윤필 (인권오름 243호)

인터넷 실명제 형평성 논란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아래 방통위)가 2011년 제한적 본인확인제(인터넷 실명제) 적용대상 웹사이트를 발표하면서 인터넷 실명제의 형평성 논란이 크게 일고 있다. 지난 3월 9일, 방통위는

2011년 제한적 본인확인제 적용대상 웹사이트로 총 146개를 선정했고 페이스북, 트위터, 미투데이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는 사적커뮤니케이션 영역으로 본인확인제를 적용에서 제외했다. 또한 소셜댓글 서비스에 대한 본인확인제 적용도 유보했다.

인터넷실명제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서만 시행하는 제도로, 만약 국외 웹사이트에 적용하려면 한국인만 본인확인 의무를 부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실제로 지난 2009년 방통위는 구글 유튜브에도 실명제를 적용하려 했으나 “구글은 평소 구글이 하고 있는 모든 것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방통위의 요청을 거부한 바 있다.

왜 한국에서만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고 유지시키고 있는 걸까? 다른 나라 국민에 비해서 한국 사람만 유독 악독한 댓글을 올려서일까? 우리나라가 인터넷 강국이라 그만큼 인터넷 상의 범죄가 유독 많아서일까? 해외 어느 나라나 인터넷 상의 악플, 범죄 등이 일어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국가도 표현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하면서까지 포괄적인 규제를 하지는 않는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정부는 인터넷실명제가 범죄예방 효과, 악플 방지 등의 효과가 있다며 인터넷실명제를 더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여당의 한 의원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일본 지진과 관련, 우리 인터넷 망에 방사능 괴담이 떠돌아 사회적 비용을 많이 지불했다”며 “본인확인제를 넘어 실명제를 도입할 생각이 없는가”라고 물었다고 한다. 무슨 괴담, 무슨 루머 등이 떠오르기만 하면 인터넷 실명제 강화를 외쳐대니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다.

인터넷 상의 게시글에 대해 신뢰를 높이고, 책임 있는 글쓰기를 통해 올바른 여론 형성이 필요하다면 이는 교육이나 캠페인, 최소한의 법적규제 등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법적규제만 강화하여 인터넷실명제 같은 제도로써 다뤄야할 문제는 아니다. 게다가 실효성도 없는 이미 무용지물이 된 이 부끄러운 제도는 이제 그만 사라져야 할 때이다.

* 이 글은 인권오름 243호에 기고한 글입니다.

표현의 자유,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지금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한국 표현의 자유가 도마에 올랐다. 현지 시각으로 3일 10시, 프랭크 라뤼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이 한국 보고서를 공식 발표하였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에는 특별보고관이 지난해 방한하여 한국 표현의 자유 실태를 조사한 결과가 담겨 있는데, 결론은 이렇다. "대한민국에서의 표현의 자유 영역은 최근 몇 년 간, 특히 2008년의 촛불 시위 이후로 줄어들고 있다". 참으로 명쾌하면서도 착잡한 말이다. PD수첩, 박원순, 선거법, 촛불시위, 용산사태, 국가보안법, 불온서적, 교사 시국선언, KBS와 YTN, 미디어법,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가 거론한 이 사건들을 일별만 하더라도 2008년 이후 대한민국에서 표현의 자유가 얼마나 농락당해 왔는지 명약관화할 수 밖에 없다.¹

특별보고관의 특별한 관심은 인터넷 표현의 자유에 쏟아졌다. 우선 한국 보고서에서 상당한 분량을 할애하여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특별보고관은 미네르바 구속기소, 언론소비자주권국민 캠페인 구속기소, 최병성 목사 쓰레기시멘트 게시물 삭제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들며 대한민국 인터넷 표현의 자유 실태가 걱정스러운 수준이라고 판단하였다. 먼저, 특별보고관은 어떤 표현이 '허위'라는 이유로 처벌받는 데 반대하며 헌법재판소의 '허위의 통신' 위헌 결정을 환영하였다. 위헌 결정이 나자마자 재빨리 대체 입법 방침을 밝힌 법무부와 검찰은 물론, 똑같은 내용으로 법안을 4개나 발의한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의원들이 귀기울여 들어야 할 얘기다.

또한 특별보고관은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물론이고 포털 등 인터넷 중개업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온라인 콘텐츠 규제에 깊은 우려를 드러내었다. 특별보고관은 방송통신위

¹ 보고서(NGO 번역본) 보기 : <http://act.jinbo.net/drupal/node/6393>

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 콘텐츠를 규제할 수 있도록 한 법률상 '불법정보'의 유형이 모호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정부에 비판적인 정보를 삭제하는 사실상의 사후 검열 기구로서 기능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권한과 기능을 독립적 자율규제기구로 이양할 것을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하며, 특별보고관 역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독립 기구에 이양할 것을 권고하였다. 한국 정부는 이와 같은 권고를 반드시 이행하는 것은 물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트위터 계정 @2MB18noma에 대하여 최근 내린 접속차단 결정 역시 즉각 철회토록 해야 할 것이다. 정말 나라망신이 아닐 수 없다.



더불어 특별보고관은 포털 등 인터넷 사업자들이 임시조치제도를 남용하지 않도록 관련 법률을 손볼 것을 권고하였고, 인터넷 실명제 대신 다른 신원확인수단을 모색할 것 역시 권고하였다.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하면서 악플이 줄기는 커녕 유엔에서 개선 권고를 받는 상황이 되다니 인터넷 강국 대한민국의 체면이 말이 아니다.

인터넷 표현의 자유에 쏟아지는 관심

사실 이번 한국보고서는 특별보고관이 발표하는 본보고서의 '부록'이다. 특별보고관은 올해의

연례보고서를 인터넷 표현의 자유에 할당하였다.²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이렇게 인터넷이라는 매체의 문제에 집중해서 보고서를 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의 사건이다. 그만큼 표현의 자유에서 인터넷 매체가 가진 비중이 커진 것이다. 인터넷은 평범한 사람들이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무엇보다 최근 중동과 북아프리카 민주화 시위에서 인터넷의 역할이 여러 사람의 주목을 끌었다.

그러나 전세계적으로 인터넷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협도 구체화되고 있다. 콘텐츠에 대한 자의적인 차단이나 필터링, 정당한 표현의 불법화, 인터넷 사업자와 같은 중개인에 법적 책임 부과, 지적재산권 침해라는 이유로 인한 이용해지, 사이버 공격, 부실한 프라이버시 보호 등이 핵심적인 문제이다. 정당한 표현을 제재하기 위하여 형사법을 자의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위축 효과'를 야기할 뿐 아니라 구금 등 당사자에 대한 인권 침해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경계의 대상이다.

선거시기, 사회적 격동기 등 주요한 정치적 순간에 이용자들이 정보에 접근하거나 전달하는 것을 기술적으로 방해하는 일이 세계 각국에서 곧잘 발생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특별보고관은 기술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인터넷 차단이나 필터링이 투명하고도 엄격한 조건 하에서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또 명예훼손이나 국가안보 보호라는 이유로, 사실은 정부나 권력자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콘텐츠를 검열하는 일이 많이 발생하는 상황이 우려스럽다. 특히 특별보고관은 명예훼손을 형사벌화 해서 안되며 평화적인 의견 제시가 국가 안보라는 이유로 제약되어서는 안 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하였다. 정부정책에 대한 토론이나 정치 논쟁, 선거 캠페인, 소수 종교나 사상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유로도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지적은 조경감 사건 등 경찰이나 정치인에 대한 비판을 명예훼손이라는 이유로 규제해온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우리의 경우에는 선거시기에 정당과 정치인 비판을 금지하는 이상한 선거법으로 많은 네티즌들이 형사처벌을 받으면서 정치적 발언의 입지가 상당히 축소되어 오지 않았던가.

최근에는 인터넷 사업자와 같은 중개인의 역할이 커지면서 그에 대한 통제를 통해 국가와 사적 권력의 입맛대로 인터넷 콘텐츠가 검열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특별보고관은 중개인이 콘텐츠에 개입할 때에는 인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것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조치는 사법부의 개입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고, 조치에 대해 이용자에게 투명하게 알리는 한편, 조치를 취하기 전에 이용자의 의견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사후 이의제기 절차를 보장

² 보고서 원문은 http://ap.ohchr.org/documents/dpage_e.aspx?m=85에서 볼 수 있다.

해야 한다는 것이다.

눈에 띄는 대목은 지적재산권 침해와 표현의 자유 문제를 결부시킨 것이다. 특별보고관은 이용자들이 지적재산권법을 위반 했을 때 인터넷 접속을 차단시키는 제도들에 대해 경악했다. 최근 지적재산권 강화추세와 더불어 삼진아웃제, 즉 세번 위반했을 경우 인터넷 이용해지 법안을 도입한 몇몇 나라들이 있다는 것이다. 한국도 해당된다. 특별보고관은 지적재산권 관련 법으로 인터넷 이용자들의 이용권한을 박탈하는 제도를 폐지하거나 수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특별보고관은 인권기구나 반체제 인사들이 DDos 공격의 목표가 되는 현상도 걱정스럽게 보았다. 또한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네트워크 사이트를 이용하여 인권운동가나 반체제 인사들을 사찰하는 것 또한 문제로 보았다. 무엇보다 익명 토론을 제약하는 것은 인터넷 이용자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고 인터넷상에서 정보와 생각의 자유로운 흐름을 방해한다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다. 이 대목에서 한국의 인터넷 실명제가 떠오르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의 인터넷 실명제는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 없이 자의적으로 인터넷 이용자의 신원을 제공받는 용도로 남용되고 있으며 2010년에만 700만 건 넘는 정보 제공이 이루어졌다.

한국 정부는 특별보고관의 권고를 이행해야

이처럼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조건들은 다양하다. 특별보고관의 권고 또한 그만큼 다방면에 걸쳐져 있다. 지적된 문제 대부분에 한국이 해당된다는 사실은 참 놀라운 일이다. 인터넷 접속률이 좀 높다는 이유로 인터넷 강국이라고 자화자찬해 왔던 일이 부끄럽다. 우리는 우리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제도들에 길들여져 있었다. 진정한 인터넷 강국은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지키려는 노력 속에서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영광이 아닐까. 인터넷 실명제처럼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제도라도 그 인권침해성이 명백해진 이상,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한국 정부는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권고들에 대하여 이행할 책임이 있다. 부디 화답하길 바란다. 이것이 인권의 '글로벌 스탠다드'이다. 책임을 회피하려 하면 할수록 국제 사회에서 인터넷 표현의 자유 침해 국가라는 오명은 더욱 깊어져갈 것이다.

* 이 글은 2011.6.5일자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글입니다

사유 소프트웨어의 ‘이용자 감옥’에서 ‘탈옥’ 하기

조동원 (미디어운동/문화 연구)

이용 허락

우리는 ‘내 컴퓨터’에 깔려있는 마이크로소프트(M\$)사의 윈도나 워드, 혹은 아래아한글, 엠피쓰리 음악파일이나 게임 프로그램을 내 것으로 여기며 친구랑 주고받거나 지우고 새로 깔고 하는 일에 아무런 문제를 못 느낀다. 하지만 저작권(법)의 강화는 바로 그런 자연스러운 문화를 문제삼는다. 보통 소비라는 것이 내가 무언가를 구매해서 소유하여 내 마음대로 처분하는 일인데, 오늘날 저작권법이 보장하는 정보 상품에 대한 소비는 그것을 임대하여 이용하는 것을 허락받는 일로 달라졌다.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사서 쓴다는 것은 컴퓨터 상의 복제를 허락받는다는 의미다. 즉, 소프트웨어는 복제(씨디롬이나 인터넷 다운로드)를 통해 판매가 되어 ‘내 컴퓨터’에 설치될 수 있는데, 이는 그것을 구매한 우리가 소유하고 양도하고 처분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계약서에 서명하고 받은 ‘이용 허락’ (라이선스, license)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 이 때 서명은 소프트웨어 설치할 때 나오는, 그러나 보통 우리가 읽지 않고 ‘동의합니다’의 란에 클릭하는 것을 말하고, 계약서는 예의 그 읽지 않고 지나친 ‘최종사용자 이용허락 동의[계약]’(EULA, end-user license agreement)를 말한다.

정품 윈도 씨디를 샀다면 위의 과정을 거친 소프트웨어 임대 계약에 따라 단지 한 개의 컴퓨터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친구에게도 깔라고 주거나 다시 팔거나 그것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물론, 엄청난 돈이 들지만,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살 수도 있다. 혹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판매하는 측이 다양한 계약 조건을 내걸 수도 있다. 한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자기가 만든 소프트웨어는 인권을 침해하는 목적으로 절대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그 계약서에 명시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주로 쓰는 대부분의 소프트웨어가 내건 이용허락은 돈

이 관건이다. 어쨌든 우리의 자연스러운 정보 이용문화와 다르게 나에게 있지만 내 것이 아니고 소유가 아니라 임대다. 거의 모든 정보상품, 즉 돈을 내고 사서 쓰게 되어 있는 정보와 지식과 문화는 다 이런 식이다. 그러면서, 경쟁 출판사들이나 해적판 제작자들을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저작권법은 지난 10여 년간 이용자에 대한 규제로 돌변해왔다. 더 이상 저작권은 ‘복제본을 생산해 판매하는 권리’에 그치지 않고, ‘권리가 있는 복제본’의 이용 협의를 구매해야 하는 이용자를 통제하는 도구가 되었다.

이용통제

문제는 소프트웨어의 지적 재산 권리를 소유한 사람이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해 언제나 통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다. 이용자에 대한 통제는 폐쇄적 독점 데이터 포맷을 통해서 잘 드러난다. 데이터 포맷은 파일을 저장하는 방식을 말한다. 우리가 엠에쓰 워드나 아래아한글로 문서를 작성하고 저장하면 디오씨(doc)나 에이치더블유피(hwp)라는 데이터 포맷으로 저장되는데, 이 세상 누구도 그 문서 포맷을 여는 방법을 모른다. 마이크로소프트(M\$)사나 한글과컴퓨터사 이외에는 말이다. 저 포맷으로 저장된 문서를 전달받은 어떤 사람이 엠에쓰 워드나 아래아한글을 안 쓴다면 열어 볼 수가 없는 것이다. 문서를 열어 보고 고쳐쓰고 하려면 엠에쓰 워드나 아래아한글 소프트웨어 복제본을 돈내고 임대해 사용하든지 어떻게든(!) 구해야 한다. 이는 문서 파일만이 아니라 음악, 영화 등 모든 파일의 공유와 교환도 마찬가지이다. 돈주고 소프트웨어를 사서 ‘내 컴퓨터’에 깔아 쓰더라도 그것이 내 것이 아니듯이, 그걸 이용해 생산한 나의 정보와 지식도 마이크로소프트(M\$)사와 같은 소프트웨어의 소유 기업이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통제가 심해 소프트웨어 사용이 상당히 불편한 일이 된다면 시장 형성이 안 될 것이므로, 통제는 눈에 보이지 않게 간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시장을 이미 독점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통제를 굳이 숨기려들지 않는다. 엠에쓰 워드의 경우 몇 년에 한 번씩 판올림을 하면서

그 데이터 포맷도 변경해버린다. 엠에쓰 오피스2007을 샀다면 docx 포맷을 쓰게 되는데 이를 이전 판을 쓰는 친구에게 보낼 수는 없다. 그 친구도 오피스2007를 사든지 어떻게든 구해놔야 그 파일을 열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의 일상적인 컴퓨터 이용문화를 놓고 볼 때 100% 공감할 얘기는 아닌 듯하다. 그래서 더 문제다! 왜냐하면 거의 모든 컴퓨터가 마이크로소프트(M\$)사 제품으로 꽉 깔려있기 때문에 어딜가도 엠에쓰 윈도, 엠에쓰 오피스, 엠에쓰 익스플로러가 있고, 혹은 한글과컴퓨터사의 아래 아한글이 있어서 이런 식의 호환을 걱정할 때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필요하면 다양한 경로로 손쉽게 구해 깔면 되니 말이다.

그러나 이런 폐쇄된 데이터 포맷의 사용은 산업계에서 ‘판매자 잠금’(vendor lock-in)이라고 부르는 사태로 이끈다. 이것은 다른 생산물이나 서비스로 옮기는 것이 학습비용과 전환비용이 너무 비싸거나 골치아픈 일이 되어 그냥 계속 그 판매자에게 의존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그에 더해 ‘이용자 감옥’이라는 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시장을 독점할 뿐만 아니라 그에 충성스런 이용자들이 허다한 판매자는 더 많은 이윤창출과 안정적인 독점 유지를 위해 자기가 만든 것만 쓰도록 통제하는 ‘이용자 감옥’을 만들 수 있다. 애플사의 아이팟이나 아이폰을 이용하는 사람들 사이에 ‘탈옥(jail-breaking)’이 성행하는 것도 시장을 독점하려는 기업이 폐쇄적 기술을 강제하는 ‘이용자 감옥’ 탓이다.

그러나 마이크로소프트(M\$)사의 윈도를 불법복제해 쓰거나 애플사의 아이팟이나 아이폰을 ‘탈옥’해 쓴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도 없다. 1998년 빌게이츠는 워싱턴대학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다: “중국에서는 해마다 3백만 대의 개인용 컴퓨터(PC)가 팔리지만 아무도 소프트웨어에 돈을 쓰지 않는다. 하지만 언젠가는 사게 될 것이다. 그들이 훔쳐 쓰려고 하는 것도 우리에겐 나쁘지 않다. 그들은 그렇게 중독이 될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 돈을 챙길지만 생각하면 되니까!” 그리고 2007년, 마이크로소프트(M\$)사의 영업 담당자인 제프 라익키스(Jeff Raikes) 역시 한 회의에서 비슷한 주장을 했다: “만약 누군가 복제 소프트웨어를 쓴다면, 그것이 엠에쓰 제품이길 바란다.” 판매자 잠금 혹은 네트워크 효과를 통한 독점화는 자발적인 불법복제 이용자들 덕분에 더욱 강화될 수 있고, ‘탈옥’은 애플사가 허용하지 않은 그러나 내게 필요한 응용프로그램(앱, app)을 맘대로 깔아 쓸 수 있는 자유를 주지만 사실상 보이지 않은 더 큰 ‘이용자 감옥’ 안에서의 그것일 수 있다.

다른 한편, 한국의 은행들이 그것을 만든 마이크로소프트(M\$)사조차 보안에 도움이 안 된다고 실토했던 액티브액스(ActivX)로 죄다 인터넷뱅킹 체계를 구축한 것도 바로 판매자 잠금과 이용자

감옥의 비극이다. 액티브액스(ActivX)는 단적인 예일 뿐이다. 한국의 마이크로소프트(M\$)사의 소프트웨어 의존도가 90% 이하로 내려간 적이 없었다. 혹시 마이크로소프트(M\$)사가 망할 위기에 처하면, 이 초국적 정보기업을 망하지 않게 하는 무슨 이용자 캠페인이라도 벌어지는 게 아닐까? 과장이 지나치지만, 일상적인 컴퓨터 이용을 그에 의존해온 한국의 수백만에서 수천 만, 혹은 전세계의 수억의 사람들이 마이크로소프트(M\$)사가 망하지 않도록 앞장 서 모금하는 따위의 끔찍한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 실제로 1998년에 한글과컴퓨터사가 무리한 사업확장과 무책임 경영으로 부도 위기에 처했을 때 그런 비슷한 일이 벌어졌으니 말이다. 마이크로소프트(M\$)사 살리기 캠페인과 같은 일은 재수없는 상상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합법복제이든 불법복제이든 마이크로소프트(M\$)사의 사유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M\$)사가 운영해온 ‘이용자 감옥’에 들어가 안에서 자물쇠를 잠그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은 곧 우리의 자유를 스스로 구속하며 마이크로소프트(M\$)사가 망하지 않도록 돋는 일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수많은 자유소프트웨어 운영체계 중 하나 - 우분투 한국 사용자 모임에서 우분투 그누/리눅스(Ubuntu GNU/Linux)를 한글 환경에 맞게 수정한 배포판 (<http://www.ubuntu.or.kr>)

습관에 맞선 투쟁

다른 수많은 것들처럼 소프트웨어에 있어서도 자유 소프트웨어의 대안으로 자유 소프트웨어가 있다. 그런데 자유 소프트웨어(free software)에서 ‘프리’(free) 가 무료가 아니라 자유라고 하지만, ‘자유에 대한 윤리’ 적 문제 설정만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M\$)사를 욕할 수는 있어도 우리의 습관을 이길 수는 없는 것 같다. 우리의 동의를 어떻게든 받아내는 (해게모니적) 지배는 우리 일상생활 속의 습관의 형태로 존재한다. 판매자 잠금 혹은 네트워크 효과는 독점의 문제로 이어지는데, 이용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습관의 문제이다. 그래서 저작권 체제 역시 우리의 자연스러운 정보공유 문화, 우리의 어떤 습관을 끌어고치려고 하듯이, 우리도 우리가 가진 어떤 습관에는 맞서 싸워야 할 것 같다. 이 습관에 맞선 투쟁을 위해, 우리를 통제하고 문화를 독점하려는 기업에 일단 ‘동의합니다’ 를 클릭하지만 자연스럽게 무시해버리는 방식의 저항과, 으레 해오던 ‘동의합니다’ 에 순순히 클릭하지 않고 과감히 대안을 키우는데 참여하는 방식의 저항이 생산적으로 만나야한다.

참고한 것

- 이정환, "HWP[에이치더블유피] 파일 포맷을 공개하라," 이정환닷컴!, 2008.11.28.
- Lindenschmidt, James W., 2004, "From Virtual Commons To Virtual Enclosures: Revolution and Counter-Revolution In The Information Age"[가상 공유지에서 가상 종획으로: 정보시대의 혁명과 반혁명], The Commoner N.9 – Life despite capitalism: The “virtual” and the “actual”, Spring/Summer 2004.
- McDougall, Paul, 2007, “If You're Going To Steal Software, Steal From Us: Microsoft Exec” [소프트웨어를 훔칠 거면, 엠에쓰의 우리 것을 훔쳐주세요], InformationWeek, Mar 12.
- Piller, Charles, 2006, “How Piracy Opens Doors for Windows” [해적질은 어떻게 윈도를 위한 문을 열었나], LA times, April 9.
- Vanheuverswyn, Maarten, 2007, “The problem with the computer industry under capitalism – Free Software the answer?” [자본주의 컴퓨터 산업의 문제 – 자유소프트웨어가 답인가?], Defence of Marxism.

서체의 이용 행위의 저작권 침해여부 판단과 제언

정진근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I. 머리말

최근 들어 폰트제작업체들이 서체이용자들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서체를 이용한 네티즌들을 상대로 한 소송은 타인의 음악저작물, 사진저작물 등을 자신의 홈페이지, 블로그, 미니홈피에 올린 행위에 대한 소송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점에서 심각성이 인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저작권법 상의 전송 또는 전시)하는 행위는 위법의 영역이 존재하는 것이지만, 서체는 저작물성이 부정되는 것 이므로 서체의 이용에 대한 무차별적인 기획소송은 보호되지 않는 권리를 주장하는 것으로서 대법원의 판결에 역행하는 행위라는 것이 본인의 판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로펌들은 서체 이용자들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거액의 합의료를 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종류의 서체를 이용하여 몇 자를 쓴 것에 불과한 경우에도 서체파일 패키지 전체를 구매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행동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의 개인적 판단임을 전제로, 우리 법원의 판례를 토대로 서체 그 자체의 이용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일반 이용자들을 위한 지원시스템의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Ⅱ. 서체의 이용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

서체의 이용과 관련되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은 [한글]프로그램 등 문서편집기를 적법하게 구매하여 이용하는 자가 [한글]프로그램에 출력된 글자를 인터넷 상에 게시하는 행위가 서체파일제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지의 문제입니다.

아래에서 설명하겠지만, 컴퓨터프로그램으로서의 서체파일을 CD에 복제하여 전송하거나 배포하는 방식으로 판매한 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대법원에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네이버의 지식iN서비스의 문의사항 및 본인에게 문의된 사항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법무법인으로부터 ***라는 폰트를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에 사용됐다며, 저작권 위반이라고, 3일 이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고소 한다는 내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폰트를 구입해야하는데, 패키지로 66만원을 구매해야 한다고 하네요!”

“포토샵에 있는 폰트를 사용하여 작업하여 웹상(옵션)에 올려 기재를 했는데 그중에 몇 문장이 폰트저작권에 걸린다면서 형사처벌을 하겠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한글 프로그램에서 회사이름을 적은 후, 그 모양을 그림으로 본 떠 홈페이지의 회사이름으로 표시한 것이 저작권 침해인가요? 4글자를 이용한데 대해 많은 합의금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들은 모두 정상적인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는 서체 그 자체를 이용한 것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Ⅲ. 서체 이용행위의 저작권 침해 여부

1. 서체와 서체파일의 구분

법원은 서체와 서체파일(프로그램으로서의 서체파일)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선, 서체 그 자체의 저작물성은 인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대법원은 이미 1996년 [저작권등록반려처분취소] 판결에서, “서체도안은 그 자체가 실용적인 기능과 별도로 예술의 범위에 속하

는 창작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저작물로서 보호된다”고 하여 예술적 특성이 없는 서체의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인 저작물에는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서체파일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저작물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서체파일에 대해서 “일련의 지시, 명령으로 해당하므로,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체도안에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서체파일 프로그램의 창작성도 부인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함으로써, 서체파일의 창작성과 서체도안의 저작물성의 인정은 별개의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컴퓨터프로그램으로서의 서체파일을 복제, 전송, 배포(이하 복제 등)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만, 서체를 이용하여 저작물을 작성하는 행위는 저작물성이 부인되는 것의 이용에 불과하므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이 됩니다.

2. 서체파일의 이용과 관련된 위법의 영역

서체파일의 저작물성을 인정한 판례들은 모두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서의 저작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프로그램저작물이란 “일련의 지시, 명령”(저작권법 제2조 제16호)을 의미합니다. 판례의 대상인 침해행위는 원고들의 프로그램으로서의 서체파일을 CD에 무단으로 모두 복제하여 판매한 데 대한 판결입니다. 프로그램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는 프로그램인 “일련의 지시, 명령”을 복제, 전송, 배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보호되는 대상은 명령어의 집합인 “일련의 지시, 명령”이지 그 결과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도 “특정한 서체의 글자 출력”은 서체파일이 아니라 프로그램인 서체파일의 ‘특정한 결과’라는 점을 명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법원은 “이 사건 서체파일은 특정한 서체의 글자의 출력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특정한 결과가 존재하고”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서편집기에 포함된 서체파일을 이용하여 얻은 특정한 결과인 출력된 특정한 서체의 글자를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위에서 문의된 사례들은 특정한 서체로 출력된 글자 그 자체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지, 프로그램인 서체파일의 지시, 명령을 복제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우리 대법원이 컴퓨터프로그램인 서체파일의 저작권을 인정하는 반면, 서체 그 자체에 대해서는 문화창작의 도구로서 저작물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한 취지에 맞을 것입니다.

저작권위원회도 이미 위원회 홈페이지(www.copyright.or.kr)의 [저작권 상담사례100]의 폰트 이용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인터넷에서 다운로드받은 폰트 프로그램이 불법인 경우, 이를 컴퓨터에 설치하여 광고물에 사용한 행위는 프로그램의 불법복제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그러나 폰트를 이용해 만들어진 광고물은 설사 적법하지 않은 폰트를 사용하더라도 저작권 침해물이 되는 것은 아니다. 글자체 자체는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아니고 폰트 프로그램만이 보호되기 때문이다.”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전화문의를 통해서도 위의 답변이 앞에서 제시한 사례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도 행정답변에서, “한글워드프로세서에서 지원하는 폰트를 프린트스크린하여 캡춰 상태로 이용한 것은 폰트프로그램에 대한 복제를 수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IV. 서체의 이용이 라이선스 위반인지의 문제

서체파일 제작업체들은 특정한 서체로 출력된 글자를 이용하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라이선스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라이선스란 지적재산권을 이용허락하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지적재산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라이선스 위반 여부를 따질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서체파일 제작업체들이 프로그램인 서체파일을 판매하면서 특정한 영역에서만 서체파일을 이용하기로 하는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용자는 프로그램인 서체파일인 지시, 명령을 복제하여 이용하는 것이므로 계약의 조건에 따라야 할 것이라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문제는 [한글]프로그램과 같은 문서편집기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서체파일인 프로그램의 지시, 명령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서체로 출력된 글자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라이선스계약을 위반하는 지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라이선스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라이선스 계약의 내용은 문화창작의 도구로서 저작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의 판단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서, 약관규제법에 따라 라이선스 계약의 내용이 무효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프로그램인 서체파일을 이용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라이선스를 통해 조건을 부가할 수 없음은 당연합니다. 특정한 서체로 표현된 글자 자체를 이용하는 것은 서체파일을 이용하는 것과는 별개의 독립된 이용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글]프로그램의 이용자들은 서체제작자들과 별도의 라이선스 계약을 직접적으로 체결한 바가 없으므로 계약의 이행자의 지위에 있지도 아니합니다. 설령 [한글]프로그램 배포자의 이용약관에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러한 조건이 충분히 명시, 고지되었는지의 여부를 약관규제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한글과 컴퓨터 사의 법무담당자에게 문의해 본 결과, [한글] 프로그램을 판매하면서 이용자에게 별도의 라이선스 조건을 명시, 고지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V. 사례에 대한 소결

결론적으로 폰트저작권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폰트프로그램저작권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즉, 서체파일의 프로그램저작물성은 인정되는 반면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을 갖지 않는 서체 그 자체의 저작물성은 부정된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토대로, 문화창작도구로서의 서체와 보호되는 프로그램저작물로서의 서체파일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프로그램인 서체파일을 [한글]프로그램과 같은 문서편집기에 무단으로 지시, 명령의 형태로 저장하여 이용하는 경우 문서편집기 제작자는 저작권위반의 책임이 있습니다. 아울러, 프로그램인 서체파일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문서편집기 제작업자나 디자인업체가 이용하도록 판매하는 행위 역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특정한 서체로 표현된 결과물인 글자를 이용하는 행위는 문화장착의 도구인 서체 그 자체를 이용하는 행위이므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부 로펌과 서체파일 제작업체들이 글자의 단순이용자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기획소송을 제기하는 행위는 법적 근거 없는 행위에 해당되므로 즉시 중단되어야 하며, 지금까지 수령한 합의금은 부당한 이득이므로 반환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VII. 정보사회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언

저작권법은 법률전문가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로 평가되고 있으며, 정보사회의 발전에 따라 이용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저작권 침해로 소송을 당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저작물성이 부정되는 경우에까지 저작권을 주장하는 경우, 부당하게 높은 금액의 합의금을 요구받는 경우는 사회적으로 큰 손실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들은 물가에 벼려진 어린

아이와 같이 충분히 보호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1) 저작물 공정이용 지원센터의 설립

저작권법은 제1조에서 문화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을 설명하고, 저작자의 권리보호와 공정이용의 도모라는 2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작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조직과 지원은 계속되는 반면, 공정이용의 도모를 위한 노력은 간과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용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저작물성이 부정되는 것을 이용하는데 대한 이용자의 보호”, “저작물성이 인정되더라도 공정이용에 해당되는 경우에 대한 이용자의 보호”, “과도한 합의요구 등에 대한 공동대처”를 목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사례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즉시 제시하고 상담할 수 있는 지원시스템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저작물 공정이용 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백만인 네티즌 서명운동을 개시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2) 불법적인 저작권 주장 및 과도한 합의요구에 대한 철저한 수사

신문기사와 인터넷에 게재되는 글들을 보면, 일부 로펌은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는 데 대해서까지 권리를 주장하는가 하면, 과도한 합의요구를 통해, 사실상 합의금 장사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로펌이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로펌이 존재한다면 철저히 수사하여 ‘공갈’ 등의 죄를 염중이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법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도 적극적으로 수사하여 끼워팔기 등의 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패키지 판매를 강요하는데 대한 업체 간의 담합이 있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파악하여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Section 011. 문화는 공유를 타고

저작권 파괴의 씨앗심기

"Minute Mem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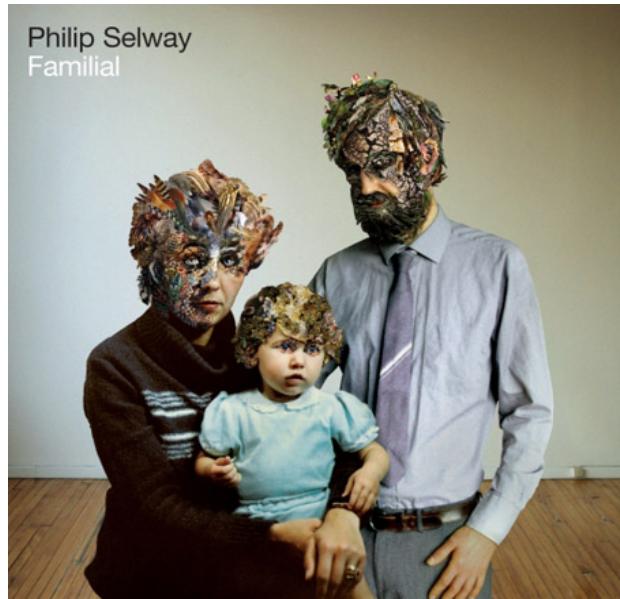
해ㅋ님의 "모든 창작은 모방이예요, 그러니까 복제는 도둑질이 아니죠!"³를 따라가다가 questioncopyright.org 라는 사이트의 Minute Memes⁴라는 프로젝트가 소개되어 있어 들리보았습니다.

프로젝트의 이름은 Minute Memes입니다. Minute은 분분을 뜻하니까 프로젝트 작품의 길이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각 영상은 저작권의 제한과 예술적 자유에 대한 1분짜리 시리즈 영상입니다. 보통 문화적 유전자로 번역되는 meme은 생물학적 유전자(gene)가 개체-종에서 발현되는 것과 대비해 사회 구성원의 행동양식으로 발현되는 것입니다. 프로젝트는 (마치 유전자처럼) 아주 짧은 영상을 통해 저작권에서 자유로운 meme을 퍼뜨리려 합니다. 소개된 영상은 애니메이션 작가인 Nina Paley에 의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저작권은 자연스러운 재산권이고, '창작자와 공공의 이익의 균형'이라는, 마치 창작자와 공공의 이익이 대립되는 듯한 고정관념"을 깨기 위한 작업의 일환입니다. 음반사, 출판사 등 저작권 기업이 유포해 온 선전에 의해 우리들은 혀락받지 않은 복제는 도둑질이거나 표절이라고 규정하는데, 이러한 사고의 틀을 바꾸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생각의 프레임을 바꾸기 위해 논리적인 주장보다는 직관적이고, 감성적인 접근을 보여줍니다. 1분짜리 영화로 만든 것은 사람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현재까지 나온 3편 말고도 예술가의 생활, 저작권 확대의 역사, 표현의 자유, DRM(디지털 권리 관리)등에 관한 후속작들이 나올 예정이라 하니 기대해도 좋을 듯합니다.

3 <http://hack.jinbo.net/?p=487>

4 http://questioncopyright.org/minute_memes

Philp Selway – By Some Miracle



락의 최 정상위에 서 있는 밴드 중 하나인 Radio Head는 거대 메이저 컨텐츠 업체인 EMI와 계약이 종료된 직후인 지난 2007년 In Rainbows라는 앨범을 온라인에서 공개했습니다. 가격은 공짜(!)에서부터 소비자가 원하는 가격까지 다양한 형태로 지불 가능했었고 MP3는 DRM(디지털 저작권 관리)이 걸려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Radiohead의 이런 시도에 전세계의 팬들은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습니다. 수억의 팬을 거느린 밴드가 자신의 정규앨범 음원을 디지털 음원 형태로 공개하여 이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겨준 사건이었습니다.

Radiohead 의 드러머인 Philp Selway 역시 자신의 곡 음원을 공개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신보 Familial 중 By Some Miracle을 온라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앨범 전체를 구매하거나 다른 곡을 듣기 위해서는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By Some Miracle은 어쿠스틱 사운드에 서정적인 가사가 인상적입니다. 인터뷰에서 Philp Selway는 7~8년동안 솔로앨범 작업을 구상했다 하는데 Radiohead에 어울리는 노래는 아니라 합니다. 판단은 직접 다운로드를 받으셔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www.philipselway.com/> 에 들어가신 다음 우측 상단의 Music을 클릭하시고 이름과 Email을 입력하시면 By Some Miracle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끝없는 비가 그친 후 맞이하는 가을과 잘 어울리는 곡입니다.

해적! 온라인 상영중



스웨덴 해적당원이자 유럽의회 의원인 아멜리아의 방한을 맞아 지난 10월 18일 서울 망원동 성미산 마을극장에서는 "다운로드 해적들" 영화제가 열렸습니다. 몇몇 작품들은 진보넷의 행사와 이곳, '문화는 공유를 타고'를 통해 소개된 바 있는 작품입니다.

영화제에서 공개했던 영화들을 이제 온라인으로 공개합니다. 영어로 된 영상들이 많은데, 여러 활동가분들의 도움으로 한글자막을 붙인 영상으로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각 영상마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를 걸어두었으니 널리널리 퍼뜨려주세요. 한글자막파일이 첨부된 버전을 원하실 경우 진보넷에 연락주시면 됩니다. :-)

★ 영상보기

이 영화를 훔쳐라!1 _ Steal this Film1 (한글자막) : <http://pirateparty.kr/blog/?p=230>

이 영화를 훔쳐라!2 _ Steal this Film2 (한글자막) : <http://pirateparty.kr/blog/?p=240>

복제는 도둑질이 아니에요 Copying Is Not Theft : <http://pirateparty.kr/blog/?p=243>

문화향유의 권리와 저작권 : <http://pirateparty.kr/blog/?p=248>

혁명을 불러낼 애니메이션 The Revolution Will Be Animated (한글자막)
: <http://pirateparty.kr/blog/?p=255>

★ 상영관주소 : <http://pirateparty.kr/blog/?cat=8>

회기동 단편선

"스무살 도시의 밤"



자립포크뮤지션 회기동단편선의 2007년 앨범인 '스무살 도시의 밤'입니다. 단편선의 자기소개를 보면 "25, 남, 서울 양천구, 무직, 좌익음악가들의 어소시에이션 인혁당 일원, 음악활동가, 포크로동자, 생계형빈민포크날품팔이, 한국마오쩌둥협의회 조직원, 자립음악생산자모임 구성원, 대중음악전문웹진 보다(bo-da.net) 편집, 전태일문화행동 일원, 진보신당 마포구 당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흥미롭죠?

이 앨범은 2007년에 170장 한정으로 나온 데모앨범으로 설명에 따르자면 '망한 밴드의 음반'으로서 '더 이상 팔 수 없으며, 팔아봤자 뮤지션에게 한 푼도 돌아가지 않는 음반을 공유하면서 홍보효과를 덤으로 누려보'고자 다운로드가 자유롭게 풀린 데모 음반입니다. 구체적인 라이선스 사항은 밝혀져 있지 않지만, 통상적으로 MP3에 넣어놓고 듣는 용도로 쓰는 것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이 한 두곡 정도의 리뷰를 작성해서 곡과 함께 블로그 등에 업로드를 해 뮤지션의 홍보에 도움을 주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지금도 단편선의 공연에서 들을 수 있는 '바람부는 인사동', '까마귀떼'등이 담겨 있습니다.

앨범설명 : <http://weareinternetfriends.blogspot.com/2010/04/2007.html>

앨범다운로드 : <http://www.mediafire.com/?z5m2jnymijg>

단편선 홈페이지 : <http://danpyunsun.egloos.com/>

단편선 트위터 : <http://twitter.com/danpyunsun>

독립, 단편영화를 위한 온라인 극장, 유에포



우리의 일상 생활 속에서 독립, 단편영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다. 영화 애호가라면 굳이 블록buster를 팔아 영화제에 찾아가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겠지만 말이다. 그런데 국내 독립, 단편 영화를 온라인을 통해 '고화질로', 그리고 '무료로'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다.

유에포(yoUeFO).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은 듯 하지만, 이 사이트는 이미 2007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하여, 현재 1000편이 넘는 영화를 보유하고 있다. 사이트 소개에 따르면, 이 사이트는 단편영화 창작자와 관객의 '소통'의 공간이고자 하며, '단편영화 제작의 활성화를 이루고 나아가서

단편영화 시장형 성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사이트는 놀랍게도 상당히 고화질의 영상을 제공한다. 또한, 모든 영화를 무료로 볼 수 있다. 다만, 영화가 마음에 들 경우 '후원'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실제 후원을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듯 하다. 아쉬운 점은 서비스되고 있는 영상에 대해 정보공유라이선스나 크리에이티브커먼스 라이선스와 같은 오픈 라이선스를 채택하고, 더 많은 후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었으면 더욱 좋지 않았을까 하는 점이다.

하나의 큰 흐름 – 원빅토런트(OneBigTorrent.org)



'원빅토런트'는 사회정의, 진보적 정치, 독립 미디어, 생태 등과 관련된 자료를 공유하는 사이트입니다. 대표적인 P2P 파일 공유 기반인 비트토런트(BitTorrent)를 이용합니다. 이곳에 올라온 자료들은 다큐멘터리, 책, 시사, 대담 등 몇 개의 카테고리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흥미로운 것은 진보적 학자인 '촘스키(Chomsky)'가 별도의 카테고리로 구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최근 것으로 2월 17일, 촘스키와 정치분석가들의 토론 파일이 올라와 있네요. '시사' 카테고리에는 최근 아랍 민주화 운동을 다룬 '알자지라' 방송도 올라와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원빅토런트와 같은 진보적인 P2P 파일 공유 사이트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네요.

Section 100. 이달의 북킹

한국 웹의 불편한 진실

『한국 웹의 불편한 진실』
김기창 저, 디지털미디어리서치,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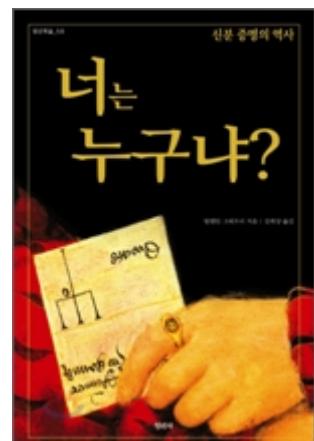


한국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 점유율은 99%에 이른다.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점유율이 높은 것은 전 세계적 현상이긴 하지만, 한국에서 보이는 수치는 거의 기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소위 'IT 강국'이라 자랑하는 한국의 인터넷 환경은 보편적인 접근권과 IT 산업의 발전까지 저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한국 웹의 불편한 진실〉(김기창 저 | 디지털미디어리서치)은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만 작동되는 인터넷 뱅킹, 이용자에게 뭔가 설치를 강요하는 보안 환경, 폐쇄적인 공공 웹사이트 등 한국 인터넷 환경의 '불편한 진실'을 파고들고 있다. 이 책의 저자인 고려대 김기창 교수(법학)는 2006년 5월부터 오픈웹 운동을 이끌고 있다. 다행히 이 책이 출간된 후, 2010년에는 스마트폰 등의 대중화에 의해 제한적인 인터넷 뱅킹 문제가 이슈가 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다. 또한, 한국의 웹 환경도 점차 웹표준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지금도 여전히 민의의 전당(?)인 국회 홈페이지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접속해야 제대로 이용할 수 있지만...)

너는 누구냐? : 신분 증명의 역사

『너는 누구냐? : 신분 증명의 역사』
발렌틴 그뢰브너 저/ 김희상 역, 청년사, 2005



전자주민증이 돌아왔다. 현재 국회에는 정부가 발의한 주민등록 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다. 정부는 올해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고

2013년부터 전자주민증을 발급할 것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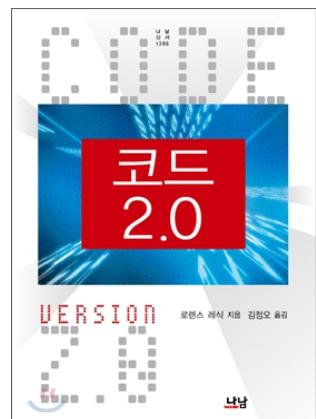
오늘날 국가의 신분확인 요구는 계속해서 늘고 있다. 간첩이나 테러범 색출이라는 이유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해 왔으며, 멀리 갈 것 없이 G20 개최를 이유로 신분확인 요구가 강화될 것이다. 더 나아가 정부와 여당은 불심검문을 강화하고 신분확인 요구를 보다 수월히 하기 위해 「경찰관 직무 집행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전자주민증은 이러한 논란의 한가운데에 있다.

저자는 중세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사용되었던 신분 증명의 다양한 방법들을 연대기적으로 살펴 보았다. 현대의 신분증명제도는 최첨단이어서 합리적인가? 저자가 보기엔 상당히 많은 신분증의 항목들이 중세에 연원을 두고 있다. 그래도 중세는 자신의 필요에 의해 선별적으로 신분증을 발급받았다는 점에서 지금보다 나았다. 오늘날 신분확인제도는 벤담의 구상과 닮아가고 있다. 저자에 따르면, 판옵티콘의 창시자 벤담은 국가가 모든 사람에게 고유한 이름을 지어주고 이를 손목에 문신처럼 새겨야 한다고 열변을 토했다고 한다. 우리가 가는 모든 시간과 장소에서 길어질 전자주민증은 우리의 또 다른 신체가 될 것이다. 벤담이 주장한 대로, 신분이 새겨진 신체.

코드 2.0

『코드 2.0』
로렌스 레식 저/ 김정오 역, 나남, 2006

나의 행동은 법, 시장, 그리고 규범의 영향을 받는다. 저자는 사이버 공간에서 개인의 행위를 규제하는 요소로서 '코드'(code)에 주목한다. 사이버 공간에서 코드는 곧 법이다. 네트의 구조가 어떻게 설계되느냐에 따라 우리는 네트에서 더 자유로울수도, 혹은 더욱 규제받을 수도 있다. 예컨대, 굳이 인터넷실명제 법이 아니더라도, 글을 쓰기 전에 본인 확인을 하도록 서비스 자체가 설계될 수 있다. (실제로 실명제의 법제화 이전에 주요 포털들은 실명제를 시행하고 있었다.) 그렇게 설계된 네트의 구조는 법과 마찬가지로 내가 하는 표현, 다른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을 규정한다. 미국의 저명한 법학자인 로렌스 레식



(Lawrence Lessig) 교수가 쓴 이 책은 1999년 처음 출판된(국내 번역본은 2002년) 『코드 2.0』은 『코드 : 사이버 공간의 법이론』(원제: Code and Other Law of cyberspace)의 개정판이다. 인터넷 법과 규제 시스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읽어봐야 할 입문서 중 하나이다.

인터넷세상과 평판의 미래

『인터넷세상과 평판의 미래:
루머, 가십, 익명성, 그리고 디지털 주홍글씨』
다니엘 솔로브 저/이승훈 역, 비즈니스맵,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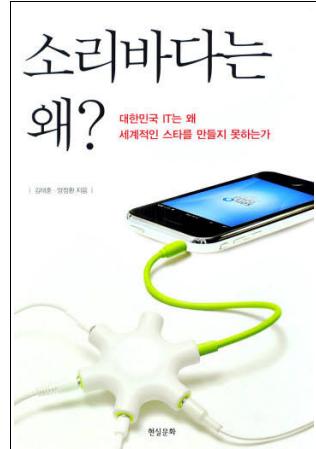
인터넷은 자유롭고 참여적인 공간이며 정보유통이 빠르게 확산된다. 이런 인터넷의 특성은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고 부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 최근 타블로 학력논란 사건이 일어나자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문화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악플, 마녀사냥 등의 문제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될 때마다 인터넷문화에 대한 강력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 제대로 된 대책은 없는 상황이다. '인터넷세상과 평판의 미래'는 한국의 '개똥녀'사건으로 이야기를 연다. 1부에서는 인터넷 상의 정보가 영구보존되고 즉시 표출되는 특성이 한 개인을 '디지털 주홍글씨'로 낙인찍는데 악용되는 위험을 비판하고 있다. 저자는 여러 사례들을 소개하며 인터넷에서 퍼지는 거짓된 소문과 가십들, 프라이버시문제, 마녀사냥 등 다양하게 나타나는 문제에 관해서 이야기 한다. 2부에서는 인터넷 상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 법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가 충돌할 때 일어나는 문제들과 그에 대한 해결책을 고민해나간다. 많은 사람들이 현재 인터넷은 질풍노도의 시기에 있다고 말한다. 이 책을 읽으면서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사이의 갈등, 지금의 인터넷 문화의 문제를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폐해를 줄일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보자.

소리바다는 왜?

: 대한민국 IT는 왜 세계적인 스타를 만들지 못하는가

『소리바다는 왜? :
대한민국 IT는 왜 세계적인 스타를 만들지 못하는가』
김태훈, 양정환 공저, 현실문화연구(현 문서가),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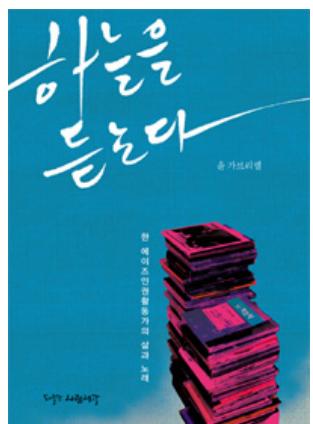
여러분은 지금도 '소리바다'를 사용하시나요? 2000년 초반, 소리바다는 가입자 2000만명-사실상 당시 인터넷을 이용하던 대부분의 이용자 수와 맞먹는-을 보유한 최대 음악 서비스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러 음악 서비스의 하나로 전락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년에 걸친 소리바다의 법적 분쟁에 대해서는 뜨문 뜨문 기사를 통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단지 소리바다와 같은 P2P 서비스와 저작권의 갈등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분쟁의 이면에는 정부의 비호아래 국내 문화 시장을 장악해온 SKT와 같은 거대 기업이 존재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소비자를 범죄자로 모는 저작권 정책, SKT와 같은 거대 기업의 횡포와 그들의 이익에 편향된 정부의 정책에 문제제기를 합니다. 과연 한국은 구글이나 페이스북과 같은 혁신적 인터넷 기업이 가능한 구조인가? 이용자들은 음악이라는 문화를 더욱 잘 향유할 수 있게 되었는가? 물론 이 책은 '소리바다'의 입장에서, 혹은 인터넷 서비스 자본의 입장에서 서술된 것이기 때문에, 이용자 입장에서는 비판적으로 읽어나갈 필요가 있겠지요.



하늘을 듣는다

: 한 에이즈인권활동가의 삶과 노래

『하늘을 듣는다: 한 에이즈인권활동가의 삶과 노래』
윤 가브리엘 저, 2010년, 도서출판 사람생각



이 책의 저자인 윤 가브리엘은 동성애자이며, 에이즈 감염인이다. 그리고 열다섯에 집을 나와 20년 가까이 봉제공장에서 일했던 저임금 노동자였다. 그는 우리사회의 편견과 차별을 이중 삼중으로 감내해야하는 사회적 조건에 놓여있다. 그러나 가난과 차별의 상처를 그는 음악과 사람을 통해 보듬고 치유하며, 현재는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에서 인권활동가로 활동하고 있다. 부제에 나타난 것처럼, 이 책은 그의 삶과 그의 삶을 지탱해준 노래에 대한 책이다. 그의 삶을 통해 오히려 우리는 척박한 이 사회를 어떻게 살아내야할지에 대한 지혜와 힘을 얻게 된다. 이 책은 격월간 인권잡지 <세상을 두드리는 사람>에 연재한 에세이를 엮은 것이며, 수익금은 인권센터 설립에 사용된다.



Section 101.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지난 3월 11일 드디어 개인정보보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은 지난 1996년 전자주민카드 논란 이후로 정보인권에 관심있는 여러 인권단체들의 숙원이었습니다. 핵심은 독립적인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설립입니다. 자기 부처 이해를 관철시키려는 행정안전부의 훠방으로 법률 제정에 이르는 과정이 지난하였으나, 식견 있는 여러 전문가, 인권단체, 야당의 노력 끝에 마침내 부족하나마 어느 정도 독립성을 갖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탄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법안에는 여전히 공공기관에 대한 예외가 많다는 한계가 남아 있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완전한 독립성을 쟁취하기까지 앞날도 지난할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실제 충분한 독립성을 갖고 있는지는 하는 일을 통해 드러날 것입니다. 진보넷은 앞으로도 개인정보보호법의 계속적인 개선을 위하여 감시와 보고 및 대응 활동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국가정보원의 인터넷 패킷감청을 반대합니다!



3월 29일 진보넷은 여러 인권단체들과 함께 국가정보원의 인터넷 패킷감청 사건에 대한 헌법 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국가보안법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국가정보원이 재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인터넷 패킷을 감청한 사실이 알려졌거든요.

'패킷감청'이란 인터넷 전용회선 전체에 대한 실시간 감청을 의미하며, 감청 대상이나 내용을 특정하여 감청할 수 없다는 점에서 특히 인권침해적인 감청 기술입니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민의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패킷감청을 금지함이 마땅합니다. 이번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그 작은 디딤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유럽! 우리 약에 손대지마 (EUROPE! HANDS OFF OUR MEDICINE)



지난 3월 2일, 주한 유럽연합대표부 앞에서는 인도-EU FTA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난데없이 왜 인도-EU FTA를 반대하나고요? 인도는 '세계의 약국'이라고 불릴 만큼 값싼 제네릭(복제약)을 120개국이 넘는 민중들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인도-EU FTA가 체결되면 의약품 자료독점권이 생겨 인도가 더 이상 제네릭(복제약)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것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민중들 역시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지요.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권리란 활동가의 글⁵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⁵ "우리 약에 손대지마!"... 인도-유럽FTA 가 가져올 위험 <http://act.jinbo.net/drupal/node/6294>

한미FTA 이행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보건복지부가 한미FTA 체결에 따른 의약품의 품목허가와 특허의 연계제도 도입을 위하여 약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허가-특허 연계는 부실특허를 양산할 우려가 높고, 후발의약품의 진입을 막아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습니다. 더구나 한미FTA 협정은 아직 국회에서 비준조차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보공유연대 IPLeft의 의견서⁶와 과정숙 의원실 주최의 토론회 자료⁷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랍혁명 사이트 오픈!

아랍 혁명 소식을 읽고 쓰고 옮기는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http://arab.jinbo.net> 진보넷이 올해 가장 많이 채택할 오픈소스 홈페이지 제작 틀 "드루팔"을 이용해서 만들었어요. 1월부터 한국에도 온갖 미디어를 통해 아랍의 소식이 전해지지만, 잘 안 알려진 이야기들, 혁명 과정에 대한 분석, 이후 아랍 사회와 전세계적 변화에 대한 전망 등에 대한 내용을 주로 나눌로고 해요!



사실 한국 운동이 중동-아프리카의 운동과 거리가 있잖아요. 잘 모르고, 그래서 정세를 분석하고 입장을 정하는 데에도 유용한 사이트였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진보넷이 너무 바빠서 아랍 혁명이 나고 난리가 났는데도 아무것도 못 하다가 그래도 최소한으로는 만들었어요..() 앞으로 엄청 업데이트되고 드루팔의 강력한 모든 모듈을 동원해 최강 사이트로 만들 계획입니다 후후후..<

⁶ 한미FTA 이행을 위한 약사법 개정에 대한 의견서 <http://act.jinbo.net/drupal/node/6279>

⁷ 토론회 <FTA 불평등의 서막, 누구를 위한 약사법 개정인가> <http://act.jinbo.net/drupal/node/6281>

영어로 된 문서들을 읽자니, 각자가 영어를 힘들게--- 읽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번역을 해서 나 자신은 영어로 된 글을 하나만 읽고 번역(!)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번역한 글은 이제 한글로 읽을 수 있으니 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번역자가 너무 모자르고 언제나 참여자가 무척 적은데요. 여태까지 한국 운동이 중동-아프리카의 운동을 잘 몰랐다면, 앞으로 잘 알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중언부언하게 되네요 하하호호

노동자와 철거민에 대한 DNA 채취

경악할 일입니다. 검찰이 최근 쌍용자동차 노동자와 용산 철거민들에게 DNA 채취를 위해 출석하라는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철거민 중 일부는 감옥에서 이미 강제로 DNA를 채취 당했다고 합니다. 이는 지난해 7월 시행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벌어진 일입니다. 우리는 이번 사건으로 이 법의 인권침해성을 똑똑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겠다는 명분으로 제안된 법안이 제정 과정에서 그 채취 대상범죄를 무려 열 개로 확대하였고 그 가운데 강력범죄라 보기 어려운 주거침입 등 절도행위도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형이 확정되지 않은 형사피의자와 미성년자까지 채취 대상으로 규정하였지요. 진보넷은 이 법에 대한 노동자와 철거민의 헌법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허구적인 지식재산 담론

지난 4월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심사소위에서 '지식재산기본법'이 통과되고 말았습니다. 이 법안은 지식의 재산화, 즉 배타적 사유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법안입니다. 소위 '지식경제' 담론은 지적재산권을 많이 보유한 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이데올로기일 뿐입니다. 과연 지식의 배타적 사유화가 문화의 발전이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일까요? 이런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토론도 없고 (국회에서 공청회가 열렸지만 이 법안에 찬성하는 사람들만 나왔을 뿐 ㅠ.ㅠ), '지식재산'

답론에 비판적인 국회의원 하나 없다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성명서⁸ 및 의견서⁹를 참고하세요.

감시사회 강연회 오세요!

지난 4월 21일부터 감시사회 강연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한홍구, 진중권, 최철웅, 엄기호, 홍성수, 한상희 … 여섯 명의 강사가 우리 사회 감시 문제를 진단합니다. 구글과 페이스북 등 상업적 감시(최철웅),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감시(엄기호), 프라이버시 관련 법과 인권(홍성수), 그리고 전자주민증 등 신분증명제도와 감시(한상희)에 대한 강연이 남아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7시 여의도 이룸센터를 찾아와 주세요! 참, 지나간 강연의 내용은 홈페이지에 차곡차곡 쌓아두고 있으니 많이들 방문해 주세요~ <http://bigbrother.jinbo.net>

<뉴타운컬쳐파티> 제작발표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4월 16일, 두리반에서 독립영화의 사회적 제작 프로젝트, <뉴타운컬쳐파티> 제작발표회¹⁰가 열렸습니다. 지난 뉴스레터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뉴타운컬쳐파티>는 일명 '사회적 제작', 즉 시민기금으로 제작 비용을 마련하고, 그 결과물인 영화를 공개 라이선스를 통해 사회에 환원하고자 하는 실험입니다. 이날 제작발표회는 홍세화 선생님,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임창재 감독(한국독립영화협회 대표) 등 100여분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진행되었습니다. 영화 트레일러도 상영되었고, 단편선, 밤섬해적단, 야마가타 트윅스터 등 인디음악가들의 공연도 있었습니다. (후기 보기)¹¹ 진보넷 회원 여러분도 <뉴타운컬쳐파티>의 '희망씨앗'이 되어주세요~!!!¹²

8 [성명] 지식재산기본법 통과에 반대한다. <http://act.jinbo.net/drupal/node/6328>

9 지식재산기본법에 대한 의견서 <http://act.jinbo.net/drupal/node/3983>

10 독립영화의 색다른 도전 <뉴타운컬쳐파티> 제작발표회 <http://act.jinbo.net/drupal/node/6324>

11 <http://ntcp.kr/45>

12 <http://www.jinbo.net/support/ntcp/donate.html>

유엔도 인정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치 심의



지난 5월 15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발족한지 3년이 되었습니다. 2기 위원들도 위촉되었어요. 진보넷은 자원활동가분과 더불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지난 회의자료와 회의록을 분석하여 발표하였습니다. 7개 언론시민단체들과 함께 토론회도 가졌지요.

그런데 2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출범하자마자 트위터 계정 @2MB18noma에 대하여 접속차단을 결정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연상시킨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은 물론 참으로 정치적인 심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진보넷은 가만있을 수 없어 다른 단체들과 함께 당사자의 이의신청을 지원하였어요.

황당한 소식은 나라밖으로도 퍼졌습니다. 지난 5월 30일부터 제네바에서 열린 제17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한국 표현의 자유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프랭크 라뤼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은 한국 인터넷 표현의 자유에 특별한 관심을 쏟았습니다. 미네르바 구속기소,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구속기소, 최병성 목사 쓰레기시멘트 게시물 삭제 사례들이 구체적으로 거론되었지요. 특별보고관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정부에 비판적인 정보를 삭제하는 사실상의 사후 검열 기구로서 기능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 기능을 독립 기구에 이양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와 같은 권고를 반드시 이행하는 것은 물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트위터 계정 @2MB18noma에 대하여 최근 내린 접속차단 결정 역시 즉각 철회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서체(폰트) 그 자체를 이용한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최근 서체(폰트) 제작업체와 일부 법무법인들이 이용자들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과도한 합의금이나 풀패키지 구매를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작권 침해를 명분으로 소위 '합의금 장사'를 하는 일부 법무법인의 행태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요. 문제는 저작권 침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침해 위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각간갈감갑강개거격
건걸검겁게거격견결경
계고곡곤꼴곰꽁과관광
교구국군굴궁균그극근
금급궁기진길김괴쾌권
나낙난날남낭내너넉년
년노녹논농누눈뉴는능

우리나라 대법원은 폰트 파일을 무단 복제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로 보고 있지만, 서체 자체에는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폰트를 이용한 이미지 자체를 홈페이지에 이용한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물론 그 폰트를 무단 복제해서 이용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지만, 외부 디자인 업체에 의뢰하여 그 결과물만 가져다 썼다면 그 이용자는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닌 것이지요. 관련한 성명서와 법적 분석을 참고하셔서 피해를 입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시대착오적인 저작권의 자화상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



갈수록 아이패드와 같은 태블릿 컴퓨터가 대중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볼만한 한글 전자책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지요. 그래서 이용자들은 자신이 구입한 책을 스캔하여 전자책으로 만들고 싶어하고, 이를 지원하는 업체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문화관광부에서 이러한 북스캔 사업을 저작권 위반으로 판정했다고 하더군요. 그럼, 이용자들은 스캐너를 구입해서 직접 한장 한장 스캔하라는 말인가요? 몇 년 전에 배경음악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주지 않고 이용자들이 스스로 올린 배경음악은 저작권 위반으로 단속한 상황이 재연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저작권인가요? 이런 식이면 최근 확산되는 소위 '클라우드' 서비스 역시 불법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보공유연대 논평을 참고하세요.

진보랩 오픈!

진보넷 개발 사이트. 일명 '진보랩'(<http://lab.jinbo.net>)이 오픈했습니다. 진보랩은 진보넷 독립네트워크팀에서 개발하고 운영하는 모든 서비스를 기획단계부터 문서화하여 공개하고 이용자들의 의견과 기술을 교환하기 위한 사이트입니다.

이제부터 모든 진보넷 서비스의 개편/개발 계획은 진보랩에 공개되며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진행하려고 합니다. 또한 그동안 진보넷을 운영하면서 얻은 IT 지식과, 진보넷이 오프라인에서 했던 강좌 내용들을 회원들과 사회단체와 공유하려 합니다. 주요 사회운동에 필요한 오픈소스들에 대한 정보가 소통될 것입니다.

진보랩은 오픈소스 Drupal을 기반으로 구축되었습니다. 진보랩은 정보운동사이트 Act(<http://act.jinbo.net>) 이후 Drupal을 이용하여 공식 런칭한 2번째 사이트입니다. 당연히 Act 때보다 급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Drupal로 홈페이지 사이트를 어떻게 구축하는지 궁금하신 분들께 도움이 될만한 정보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Section 110. 회원 인터뷰

진보넷 사무실 분위기를 업~!해주시는 김지성 회원님

이번 회원인터뷰 주인공은 요즘 매일 진보넷에 오시는 새로운 운영위원 김지성님입니다. 언제나 밝고 수다스러운 모습으로 진보넷 분위기를 한 층 밝게(?) 만들어주시는데요. 진보넷 사무실 분위기가 어떤지, 요즘 관심 갖는 이슈는 무엇인지, 김지성 운영위원님의 이야기 함께 들어볼까요?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름은 김지성이라고 합니다. 서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딸과 옆지기 덕분에 행복하게 살아가는 보통 사람입니다. 일반 기업, 대학 연구실, 정당, 시민단체(진보넷) 등 두루 두루 다양한 환경에서 일해봤었습니다. 현재는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더 나은 소통과 협업을 위한 도구를 만들어보자는 생각으로 컴퓨터 프로그래머로서 백수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올 해부터 진보넷 운영위원이 되셨는데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려요.

솔직히 운영위원을 맡을 능력이 부족해서 부담스럽습니다. 진보넷에 상근을 했었던 것, 진보넷 상근자들과 같이 일했던 경험, 그리고 아마도 정보통신기술 및 정책에 대한 조금의 이해가 있다는 점에서 운영위원으로 추천이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험이 다 조금씩이라 진보넷의 운영에 도움이 될지 해가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잘하도록 노력해보려고 합니다.

진보넷에 자주 오시는데, 사무실 분위기 어떤가요?

대단히 열심히 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같이 떠들고 놀기 좋아하는 사람은 이런 일하는 모드의 사무실에서 해악일 것이라 항상 조심해야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천성은 어쩌지 못해서 혼자서 사무실에서 떠 들고 있습니다.

진보넷의 여러활동 중 가장 관심있게 지켜보시는 것이 있다면?

기술과 관련한 분야에 관심이 있다보니, 진보넷의 새로운 서비스 개발에 관심이 많습니다. 진보넷의 정책도 그렇지만 기술 자원도 풍부한 것이 아니지만, 진보넷이 꾸준히 변화해가는 기술에 발 맞추어 새로운 소통의 방식을 고민하고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보넷의 활동을 보면서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는데 부족한 부분도 많이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진보넷에서 준비중인 새로운 진보사회단체 디렉토리 서비스가 어떻게 기존의 디렉토리 서비스(KPD)를 넘어서 새로운 정보 패러다임을 반영해서 구성될지 흥미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진보넷 회원님들께 소개하고 싶은 최근에 보았던 영화나 책 등이 있으시다면 소개부탁드려요.

요즘 영화는 거의 본 것이 없고, 책도 대부분 기술에 관한 것이어서 딱히 머리에 떠오르는게 없는데요. 그래도 지루하지 않게 보았던 영화가 찰스 퍼거슨 (Charles Ferguson) 감독의 2010년작 Inside Job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영화의 소재는 2008년 미국의 금융 위기입니다. 주로 관련한 관료, 학자, 언론인 등의 인터뷰 위주로 구성되어서 특별한 자극 없이 담담히 진행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를 다룬다 보니, 나오는 이야기가 많은 부분 새롭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소위 경제 또는 금융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의 인터뷰로 내용을 채우다 보니 좀 딱딱한 느낌이 없잖아 있습니다. 하지만, 1930년대 대공황 이후 미국경제의 금융자유화(탈규제)와 금융 공학의 발전(?)이 결국은 어떻게 계속되는 금융 위기를 나으면서 결국은 2008년 가장 큰 금융 위기로 연결이 되었는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영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화를 보면서 울컥하는 부분을 꼽으라면, 2008년 위기 이전에 계속되는 위기에 대한 경고가 체계적으로 무시되는지를 보여주는 부분과 위기 이후에도 계속되는 월 스트리트의 관료 및 학자들에 대한 지대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최근 관심있는 이슈는 무엇인가요? 소개해주세요~

많은 분들이 요즘 관심 있어하는 핵발전의 문제와 아프리카 및 중동의 민주화 투쟁에 저 또한 관심이 큽니다. "안전한 핵발전" 그리고 "경제적인 핵발전"이라는 터무니 없는 수사가 판치는 것을 보면 화가 많이 나기도 합니다. 아프리카와 중동의 민주화 투쟁을 보면 이제 민주화의 시작한다는게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고 많은 이들의 희생을 앞으로도 필요로 할지 생각하면 독재 정권이 무너지거나 무너질 위기에 처한 상황을 보면서도 마음이 그리 편치 않습니다.

이제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는데요. 회원님께 봄은 어떤 느낌인가요?

봄은.... 저에게는 더 이상 춥지 않은 날씨 그래서 얇은 옷과 이불을 꺼내 입는 것 정도 같습니다. 흄... 별다른 감상이 떠오르는 것은 없습니다.

진보넷에 바라는 점 한마디 해주세요.

너무나 많은 일을 감당해야 해서 열심히 일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 같아도, 좀 돌아서 가고, 즐기면서 일하는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복작 복작 모여드는 곳(온라인에서든 오프 라인에서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쾌 발랄 진보넷 새상근자 하주영님

이번 달 인터뷰 주인공은 5월부터 진보넷에서 활동하게 된 하주영님입니다. 하주영님이 진보넷에 등장하자마자 긍정의 기운이 사무실에 마구마구 퍼지는데요. 짧은 시간이지만 그 동안 진보넷에 대한 느낌, 그리고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싶은지 우리 함께 들어볼까요?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에~저는 그동안 미디어운동을 해왔더랬습니다. 미디어센터, 공동체 라디오, 방송제작 등의 활동을 했었지요. 약 2년 전부터 활동을 잠깐 쉬었는데, 그동안 쌍둥이를 생산했답니다. 애 낳은 사람은 다 안다는 두뇌 포맷 과정을 거쳤기에 활동을 다시 시작하는데 어리어리한 상태입니다.

5월부터 진보넷에서 활동하게 되셨는데요. 무슨 계기로 활동하게 되었나요?

놀면 뭐하겠습니까? 진보넷 활동에 필요한 부분을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구요. 훗~^^

요즘 하주영님의 제일 큰 관심사는 무엇인가요?

포맷된 두뇌를 다시 잘 정비하고 새로운 정보와 기술을 습득하는 겁니다. 2년동안 세상이 월계 많이 변했을까요? 소셜네트워크도 그렇고 기술도 그렇고.... 집에서 재미삼아 해보던 것과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은 살짝 차이가 있네요.

진보넷에서 앞으로 어떤 활동들을 펼쳐나가실 계획인가요?

네, 오병일 정책활동가와 함께 새로운 사업 및 정책 활동을 하구요, 진보넷의 미디어 생산 부분을 조금 활성화 시켜볼까 합니다. 활동이 잘 펼쳐질지는 두고봐야죠, 뭐.

진보넷에 출근하신지 2주정도 되셨는데요. 진보넷 느낌이 어떤가요?

휴일이 징검다리로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알바한 기분?^^ 진보넷 느낌은 한사람씩 술먹어봐야 알 수 있겠는걸요.^^

진보넷에서 가장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새침떼기 황국장?

반대로 아직은 좀 어색한 사이인 사람이 있다면?

마찬가지로 새침떼기 황국장?

'진보넷, 이것만은 마음에 듈다!'하시는 것이 있나요?

공동 취사는 밥값 절약에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진보넷 새로운 식구가 되셨는데, 회원님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려요^^

아직 떨려요. 수줍어요. 점점 활발한 활동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진보넷의 이웃이자 회원, 박래군님!

이번 달 인터뷰 주인공은 진보넷 이웃으로, 아랫층 <인권재단 사람>에서 활동하시는 박래군 회원님입니다. 인권센터 설립 때문에 쉴 틈 없이 바쁘시다는 박래군님! 그의 요즘 고민거리는 무엇일까요? 무더운 여름, 시원한 카페에서 진행된 박래군 회원님과의 수다! 함께 보실까요?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래군입니다. 현재 인권재단 상임이사, 사랑방 돈움활동가, 여러 연대단체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진보넷 후원을 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예전부터 진보넷 후원을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후원회원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바로 후원회원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보넷 후원회원 왜 당장!!!! 하게 되었나요?

진보넷이니까! 진보넷이 우리사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정보통신과 관련한 운동을 처음 시작하고 꾸준히 하고 있고 그런 단체는 진보넷 말고는 없으니까요. 현재 정보통신기술과 관련한 프라이버시권의 침해라던지 심각하고 광범위한 정보인권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에 이런 문제들을 전담하는 단체가 없는데 진보넷이 유일하게 이런 역할을 하고 있고 이런 진보넷은 굉장히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후원하게 되었죠.



그럼 특히 진보넷의 활동 중에 관심있게 지켜보는 활동이 있나요?

표현의 자유 영역입니다. 인터넷설명제 부분 같은 경우 누구나에게나 해당하는 문제인데 문제에 대해 무감각한 것 같아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자원활동을 하면서 진보넷과 함께 감시활동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요즘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제일 고민거리는 인권센터 설립이죠. 이 것 때문에 다른 활동들은 줄이고 있어요.

인권센터 설립을 위한 주춧돌 모으기는 잘 진행되고 있나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다 잘 안되요. (웃음) 매월 말 명사들을 초청하여 연속강연회하고 "인권이된다"라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 달려가 현장출장강의도 꾸준히하고 모금하러 다니고 있어요. 전문적인 용어로 사람들 뻥뜯으러 다니고 있다고 하죠. 올해 연말까지는 인권센터 공간을 꼭 만들겠다는 각오로 하고 있어요. 주춧돌 가입하시면 돌에 이름도 새겨주는데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어요. 주춧돌 많이 모아주세요.

건강이 안좋아 보이는데 관리는 따로 하시나요?

작년 겨울부터 몸이 힘들었는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봤더니 수면무호흡증이 심각해서 치료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술, 담배를 끊고 있습니다. 담배는 계속 피고 싶고 6월부터 끊어서 끊었다고 할 수도 있지만 건강이 안좋아서 노력하고 있어요. 운동도 하고 있고 악착같이 살려고.. 죽더라도 인권센터 만들고 죽을려고..(웃음) 건강할때 건강을 지켜야합니다. 특히 이종희 대표님 술, 담배 줄이시고요.

최근에 접한 뉴스중에서 제일 인상깊었던 뉴스가 있나요?

최근 등록금 투쟁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현 정권에 대한 불만들이 높은데 그런 것들이 폭발한 것 같아요. 당장 학생들 시험과 방학이라서 투쟁이 크게 번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쉽게 꺼지지도 않을 겁니다. 이런 투쟁을 사람들이 절망과 좌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투쟁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요. 저도 인권센터에만 매달리지 않고 현장에 나가 함께 하고 싶어 몸이 근질근질합니다. 난 현장체질인가봐요.

진보넷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진보넷이 회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시민들이 참여해서 함께 할 수 있는게 무엇이 있을까 끊임없이 고민해야합니다. 기술적 문제 등 어려운 장벽이 있지만 그 벽을 넘어서 정보감시운동 등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끊임없이 모색했으면 좋겠어요.

A photograph of a middle-aged man with dark hair, smiling at the camera. He is wearing a brown, button-up shirt. The background shows a modern building with large glass windows and a glass roof, suggesting an indoor-outdoor atrium. There are some evergreen trees and a white pillar visible.

Section 111 센터 속사정

진보통신연합(APC) 총회 참가



지난 3월 17일~21일까지 필리핀 팡라오섬(Panglao Island)에서 진보통신연합 APC¹³의 정기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진보통신연합 APC는 정보통신운동과 관련한 국제적인 네트워크이고, 진보네트워크센터도 2001년부터 회원 단체로 가입¹⁴되어 있습니다. 부족한 영어실력에도 불구하고 '국제연대의 끈을 놓지 않기위해' 꾸역꾸역 APC 총회에 참석하고 있는 오병일 활동가. 과연 야자수나무가 우거진 휴양지에서 놀고 온 것인지, 아님 머리를 쥐어뜯으며 다시 한번 영어 스트레스만 잔뜩 받고 온 것인지... 자세한 참가기는 요기 <http://blog.jinbo.net/jinbonet/182>.

제빵왕 모님!

진보넷 활동가 모님께서는 요즘 제빵학원을 다니고 있는데요. 사무실에 항상 만드신 빵을 가지고 오신답니다. 고소한 냄새가 솔솔~~제빵왕 김탁구가 부럽지 않은 제빵솜씨!! 덕분에 진보넷 활동가들은 여러가지 빵맛을 즐기고 있는데요. 오늘은 소보루, 내일은 무슨 빵을 만들어 오



13 APC(Association for Progressive Communications) <http://www.apc.org/>

14 <http://act.jinbo.net/drupal/node/77>

실까? 모님이 언제 오시려나? 기다리는 활동가도 눈에 띕니다^^ 운 좋은 시간에 진보넷 사무실에 오시면 제빵왕 모님의 빵맛을 느껴보실 수도..^^

진보넷, 현판이 생기다!



진보넷에도 드디어 현판이 생겼답니다!! 그동안 A4용지에 진보네트워크센터라고 쓰여진 초라했던 글씨가 멋진 현판으로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짜짠! 문정현 신부님께서 직접 정성껏 만들어서 선물해 주셨답니다. 진보넷 활동가들은 현판을 받고 정말 기뻐했어요!! 직접보면 훨씬 더 멋져요! 때깔 좋은 현판 구경하러 놀러오세요~~